

경기학광장은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가 발간하는 계간지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고자 합니다.

경기학광장

Vol. 18 2023 가을호



평택시 농업생태원

경기함광집

Vol. 18 2023 가을호



Nature & People

- 08 도심에서 만난 ‘물향기수목원’
- 13 아름다운 가을꽃의 향연, 평택시 농업생태원
- 18 지역문화운동과 ‘용인문학’의 산증인 시인 김종경
- 24 “테니스를 하십니까? 버섯 채집 다닙니까?”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
발행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기획 경기학센터
발행일 2023년 9월
주소 (우 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생생1990
전화 031-231-8571
홈페이지 www.ggcf.or.kr
E-mail butwoo@ggcf.or.kr
편집디자인 디자인이즈

본 계간지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글과 사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rip & Healing

- 32 상수골 60번지 칼국수 전문점
- 37 ‘마지막 모습’이 서려 있는 임진강과 연천
- 42 ‘정려가 다섯 개~’ : 안산 오정각

Research & Study

- 48 전국선사박물관의 오늘이 있기까지
- 55 조선시대 전기 왕실 원찰 성남 갈현동 유적
- 63 ‘임원경제지 학교’를 통한 파주학의 대중화와 임원경제학의 태동
- 67 경기도 안양지역의 근대문화유산

부록

- 76 <경기학광장> 제1호~제18호 수록 글 목록

NATURE & PEOPLE

도심에서 만난 '물향기수목원'

아름다운 가을꽃의 향연, 평택시 농업생태원

지역문화운동과 '용인문학'의 산증인 시인 김종경

“테니스를 하십니까? 버섯 채집 다닙니까?”

도심에서 만난 ‘물향기수목원’

김미희

우리는 주변에서 수목원이나 식물원을 쉽게 접한다. 그런데 수목원과 식물원은 어떻게 다를까? 수목원(樹木園, arboratum)은 말 그대로 ‘나무동산’을 뜻하며 나무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전시하고 이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반면 식물원(植物園, botanical garden)은 식물을 광범위하게 채집하여 채집한 지역과 일반명 및 학명을 명시하여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된 곳을 말한다. 나무도 식물이다 보니 수목원 또한 식물원에 포함되는 개념일 수 있다. 굳이 수목원이라 하는 것은 나무류(木類) 식물을 위주로 하고, 풀류(草類) 중에서도 다년초를 대상으로 식재·관리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식물원법이 별도로 없고 수목원정원법에서 정의하는 수목원이 사실상의 식물원을 뜻하기 때문에 둘의 구분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수목원이 덩치 있는 나무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체로 식물원보다 면적이 크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물향기수목원은 ‘물과 나무와 인간의 만남’을 주제로 2006년에 개원하였다.

경기도의 수목원과 식물원

우리나라 식물원(수목원) 형태의 기원은 1907년 일제가 수원(옛 서울농대 내)에 교재에 필요한 나무를 수집하여 심은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름 자체는 창경궁 대운실(2004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에서 시작한다.

대한제국 말기 일제는 순종을 사실상 창덕궁에 유폐시킨 뒤 ‘근심이 많고 우울한’ 순종의 마음을 달랠다는 명분하에 궁궐을 유원지로 개조하였다. 즉 궁궐 안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짓고 이름도 궁궐이 아닌 창경원(昌慶苑)으로 격하시켰다. 이 중 식물원에 해당하는 창경원 대운실은 1908년에 짓기 시작하여 1909년 11월 1일에 개관하였다. 이때 동물원과 식물원 개원을 주도했던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개원 5일을 앞두고 하얼빈에서 안중근(安重根) 의사에게 피살됨으로써 개원식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당시 식물원은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였으며, 쉽게 보기 힘든 열대식물을 비롯한 많은 화초를 전시하였고 1920년대에 이미 바나나를 심기도 하였다. 일제강점 이후 식물원은 이왕직식물원(李王職植物園)으로 불렸으며, 6·25전쟁 중에 폭격으로 일부 시설이 훼손되었다.

1980년대 들어 창경궁을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과천시 막계동(현 서울대공원)에 부지를 마련하고 동물원(1984년)과 식물원(1985년)을 연이어 옮기게 되었다.

오늘날 경기도에는 서울대공원 식물원과, 국내 최대 규모의 수목원인 국립수목원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국립·사립 수목원이 분포하고 있다. 지면상 나열을 생략해야 할 정도이다.

가벼운 걸음으로 수목원 한 바퀴

수목원에 ‘향기’가 붙은 물향기수목원과 바다향기수목원은 경기도립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물향기수목원은 오산시에 있고, 바다향기수목원은 안산 선감도에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은 바닷가에 있어 그 이름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지만, 물향기수목원과 오산시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진다. 수목원 인근에 어떤 강이나 시내가 흐르는 걸까. 수목원 북쪽으로 ‘작은말천’이 흐르다 오산대역에 이르러 꺾리천이 되고 이는 오산천에 합류하여 진위천으로 흘러든다. 이 지역이 예로부터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라 하여 수청동(水淸洞)이라 불렀다고 한다. 물향기수목원의 홈페이지에서는 특정 개천보다는 수청동이라는 지명에서 수목원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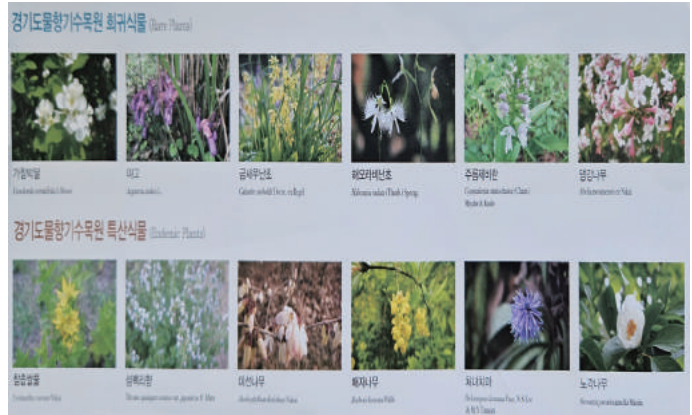
수목원의 규모는 34만㎡(약 10만 평)으로 ‘물과 나무와 인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2006년 5월에 개원하였다. 24개 주제로 나누어 원(園)을 구성하였는데, 주로 물과 관련된 습지생태원·수생식물원·호습성식물원을 비롯하여 한국의 소나무원,

- 국립수목원 : 포천시 광릉수목원로 415
- 더그림 : 양평군 옥천면 사나사길 175-5
- 덕평공룡수목원 : 이천시 마장면 작촌로 282
- 도당근린공원 백만송이장미원 : 부천시 도당동 산25-5
- 들꽃수목원 : 양평군 양평읍 경강로 1698
- 물맑음수목원 :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로307번길 47-4
- 물향기수목원 : 오산시 청학로 211
- 미림식물원 :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176
- 바다향기수목원 :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399
- 벽초지수목원 :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 242
- 부천 호수식물원 : 부천시 조마루로 15
- 부천무릉도원수목원 : 부천시 춘의동 382
- 부천식물원 : 부천시 길주로 660
- 산들소리수목원 : 남양주시 불암산로59번길 48-31
- 서울대공원 식물원 : 과천시 막계동 산62-5
-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관악수목원 :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280
- 세미원 :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 수목원프로방스 : 포천시 신북면 탑신로 1066
- 신구대학교 식물원 : 성남시 수정구 적푸리로 9
- 아침고요수목원 : 가평군 수목원로 432
- 안산수목원 :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13
- 에버랜드식물원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 연천 허브빌리지 식물원 : 연천군 왕징면 북삼로20번길 37
- 영흥수목원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35
- 용도수목원 : 시흥시 발뒤길 32
- 율곡수목원 : 파주시 파평면 장승배기로 392
- 율봄식물원 : 광주시 퇴촌면 태허정로 267-54
- 일월수목원 : 수원시 장안구 일월로 61
- 지피식물원 :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521-44
- 평강랜드 :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산155
- 하남나무고아원 : 하남시 미사동 607
- 한택식물원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한택로 2
- 호명고산식물원 :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산63
- 화담숲 :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278-1
- 화성시우리풀식물원 : 화성시 팔탄면 3·1만세로 777-17
- 향학산수목원 : 여주시 매릉동 296

단풍나무원, 유실수원, 대나무원, 무궁화원, 중부지역자생원, 난대식물원, 수국원, 억새원, 분재원 등이 있다. 나무류 870종과 풀류 1,120여 종 등 총 2,000여 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물향기수목원의 희귀식물로는 가침박달(*Exochorda serratifolia*), 야고(*Aeginetia indica*), 금새우난초(*Calanthe sieboldii*), 해오라비난초(*Habenaria radiata*), 주름제비란(*Neolindleya camtschatica*) 등이 있고, 특산식물로는 참좁쌀풀(*Lysimachia coreana*), 섬백리향(*Thymus quinquecostatus var. magnus*), 미선나무(*Abeliophyllum distichum*), 매자나무(*Berberis koreana*), 처녀치마(*Heloniopsis koreana*), 노각나무(*Stewartia koreana*) 등이 있다.

수목원의 안내 팸플릿에서는 편의상 수목원을 한 바퀴 관람하는 동선을 표시하고 있지만 전혀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순서 없이 내키는 대로 걸어도 눈과 코가 호강하는 동안 2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이다. 주요 주제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물향기수목원의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소개한 팸플릿



물향기수목원 관람 안내도



만경원



토피어리원

▶ 만경원(蔓莖園)

터널식으로 만들어 등나무나 담쟁이덩굴, 칩덩굴 등이 감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장미꽃이 만개하는 5월에 장관을 이룬다. 덩굴류 식물은 조경용으로 쓰이거나 식용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나무나 식물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

▶ 미로원(迷路園)

나무로 만들어진 미로로 가운데까지 찾아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임으로 주로 어린이들의 모험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전에는 중앙에 작은 종각을 설치하여 '목표 달성'의 의미로 종을 울리게 하는 시설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 토피어리원(Topari園)

토피어리는 '가다듬다'라는 뜻으로 정원의 나무를 인공적으로 다듬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작품을 말한다. 현재 물향기수목원 토피어리원에는 주로 향나무에 공룡·거북·공작·새 모양의 작품이 조성되어 있다.

▶향토예술의나무원

여러 예술가의 작품과 노래 속에 등장하는 식물을 주제로 조성하였다. 김소월·홍난파 등의 작품에 등장하는 진달래·복숭아·살구 나무 등이 모여있다.

▶수생식물원(水生植物園)

식물체의 전체 또는 일부가 물속에서 자라는 식물을 통틀어 일컫는다. 정수식물(연꽃이나 부들처럼 뿌리는 땅속, 줄기와 잎 대부분이 물 위), 부유식물(개구리밥처럼 뿌리는 물속, 잎은 표면 위), 부엽식물(수련처럼 뿌리는 땅속, 잎은 표면 위), 침수식물(물수세미처럼 뿌리는 땅속, 잎은 물속)로 나뉜다.

▶물방울 온실

물이 맑은 지역이라는 수청동의 지명을 물방울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지은 건물로 바나나·망고 등 아열대 식물 340여 종이 전시되고 있다.

▶습지생태원

굽이굽이 나무데크로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면서 습지를 관찰할 수 있다. 여름철에는 무엇보다 그늘이 져서 좋고, 어린 시절 뚝방이나 웅덩이에 대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어서 더욱 좋다.

▶무궁화원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의 꽃 색깔에 따라 청단심계(보라색 계통의 꽃잎에 붉은색 단심), 아사달계(흰색 또는 연한 분홍색 꽃잎에 붉은색 단심), 백단심계(흰색 꽃잎에 붉은색 단심), 홍단심계(꽃과 단심이 모두 붉은색 계통), 배달계(꽃과 단심이 모두 흰색) 등으로 나누어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였다.

▶물향기산림전시관

온갖 산림자료를 수집·보존·관리하고 도민의 산림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2007년 6월 27일에 개관하였다. 잔디광장 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나뭇잎이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건물이 디자인되었다고 한다. 특별상설전시관·상설전시실·영상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실은 ‘깨어나다’(숲의 생명력), ‘숲과의 즐거운 만남’(숲과 인간의 만남), ‘물가의 정경’(습지의 생태), ‘위대한 숲의 힘’(산림의 혜택), ‘기쁨과 감사의 노래’(체험과 참여)를 주제로 꾸며졌다.

계절에 따라 봄에는 개나리·산수유·진달래·목련·생강나무·할미꽃·노루귀·양지꽃·피나무·현호색 등이, 여름에는 이팝나무·쪽동백·조팝나무·때죽나무·참나리·매발톱·둥굴레·기린초·은방울꽃·연꽃·수련·부처꽃 등이 전시된다. 가을에는 구절초·국화·별개미취·쑥부쟁이 등이 전시되며, 감나무·밤나무·대추나무 등의 열매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전시관과 주변은 ‘물향기에코티어링’(echoteering; 활동지를 활용한 자율 관찰 및 과제 수행), ‘조물조물 자연물 만들기’(숲 체험 후 자연물을 이용하여 만들기), 목공예 소품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숲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과 인간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생식물원



물방울 온실



습지생태원



무궁화원



물향기산림전시관



전시관 내 1



전시관 내 2

기타 : 난대·양치식물원은 새롭게 단장을 앞두고 있고, 곤충 생태원은 철거 후 식물도서관으로 조성 중이다(2023년 11월 완공 예정).

수목원을 나서며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진행으로 인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경제적·정책적·문화적·환경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중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오염, 쓰레기 처리문제, 매연·온실효과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 개발논리에 뒤따르는 생태계 파괴(교란)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분명하다. 특히 인구집중으로 인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난개발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흉한 모습을 한 기형적인 도시가 여기저기 들어서게 되었다. 이렇듯 고속성장시대에는 양적 팽창을 지향하고 물질을 우선하였지만, 이제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을 우선시한다. 도시민에게 휴식과 마음의 여유를 제공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물향기수목원은 이미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 되었다. 수목원에서는 수목원을 공원이나 유원지가 아니라 연구시설이라고

안내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여유를 즐기며 쉴 수 있는 공간이라면 수목원·공원·유원지를 별개로 구분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식물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더라도, 커다란 망원렌즈로 무장한 꽃 촬영 전문가나 동호인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들의 견학·체험 방문이 아니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힐링을 목적으로 수목원을 찾고 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의시설과 쉼터가 충분할 뿐 아니라 경사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아 거니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행(旅行; travel)’은 한 번만 가본 경우에도 그곳(그것)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답사(踏査; exploratory survey)라는 개념은 한 번 경험해서 붙이기 어려운 용어이다. 계절에 따라 제각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수목원은 적어도 네 번은 다녀와야 비로소 그곳을 답사했다고 할 것이다.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철에는 그늘이 보장되는 습지식물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수목원을 나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역새가 나부끼고 단풍이 화려할 다음 계절의 수목원 방문을 기약하며 오늘의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이다.

글 김미희

공주대학교에서 생명과학과 식물생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생물생태자연연구소 대표로 있으며 국립생태원 생태계조사(외부조사원) 식물 분야 전문 조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름다운 가을꽃의 향연, 평택시 농업생태원

이우진

가을이 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눈으로 보고, 가을이 오는 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가을이 되면 많은 가족은 주말에 나들이를 밖으로 나간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가까운 곳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농촌 테마파크 여행 장소가 있다. 그곳은 바로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평택시 농업생태원이다.

원래 이곳은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농작물을 기르고 실습하는 장소였다. 하지만 농업이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잘 마련해놓았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꽃과 식물을 기르는 <자연테마식

물원>과 <야외 정원>, 우리나라 전통 농기구를 전시하는 <농업전시관>, 그리고 닭과 오리, 토끼, 다람쥐, 조류 등을 관찰하고 먹이 체험도 할 수 있는 <동물체험농장>, 반려동물의 편안한 휴식처인 <모루마루 반려견 놀이터>가 아기자기하게 배치되어 있다.

올해 10월 하순에 평택시 농업생태원을 방문하게 되면 <제2회 평택 가을 수확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 형형색색의 국화꽃과 아름다운 코스모스를 보면 저절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한다. 또한 평소 자주 보지 못했던 낫선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 하고 자녀와 함께 생태학습으로 삼아 재미있게 둘러보기 안성맞춤이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국화꽃과 코스모스꽃이 피는 가을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평택시 농업생태원으로 가보자. 평택시 농업생태원 내에는 평택농업전시관, 자연테마식물원, 그리고 입구 앞 <로컬푸드 종합센터>에는 슈퍼오닝으로 유명한 평택시에서 재배한 다양한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고, 바로 옆 방문자센터 안에서는 다양하고 예쁜 꽃들을 만나볼 수 있다.

아름다운 가을꽃들의 향연, 평택시 농업생태원

먼저, 넓은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하고 평택시 농업생태원 입구 앞에 도착하면 바로 옆에 방문자센터가 있다. 실내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예쁜 꽃들이 가지런히 잘 전시되어 있다. 방문자센터에서 아름다운 꽃을 맛보기로 관람하였다면 이번에는 야외 정원인 평택시 농업생태원으로 걸어가 보자.

방문자센터를 나와 중앙으로 길을 따라 쪽 걸으면 아름다운 <바람원> 정원을 만나게 된다. 이곳에는 사진찍기 명소도 있어서 친구, 연인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가족사진을 찍으면 참 좋다. 말 그대로 바람원에 들어서게 되면 언덕 위에서 바람이 솔솔 불어 자연스럽게 바람개비가 휘날린다. 산책을 나온 어린아이들이 예쁜 꽃을 보며 걷는 길이 너무 정답고 참 아름답게 느껴진다.

중앙 공원인 <바람원>을 지나 언덕 위인 <내음달>에 도착한다. 내음달은 평택시 농업생태원에 있는 작은 언덕으로서, 이곳에 오르면 평택시 농업생태원을 한눈에 다 내려다볼 수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가을을 상징하는 꽃인 형형색색의 국화꽃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가을꽃들의 향연을 볼 수 있다. 내음달에서 내려오면 <어린이 놀이터>가 잘 마련되어 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만 봐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후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나비·곤충 생태학습장>으로 나갈 수 있다. 나비·곤충생태학습장에서는 나비와 곤충을 두루 살펴볼 수 있어서 참 좋다. 이후 주변에 다양한 관상조류, 소동물 어울림 공간, 다람쥐 터널, 토끼생태 학습장이 잘 갖춰져 있어서 어린 자녀와 함께 체험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알다시피 어린 아이들은 귀여운 동물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차례대로 <소동물 어울림 공간>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 새인 꿩, 오리, 닭 등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다람쥐 터널>에서는 귀여운 다람쥐를 만나볼 수 있다. 다람쥐들이 둥근 터널을 통해 이동하는 모습을 잘 관찰할 수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직접 가서 다람쥐를 보면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을 뽑으려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토끼다. 그래서 아이들이 토끼에게 먹이를 주면서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토끼생태학습장>이 잘 구성되어 있다. 입구 방문자센터



맞은편에서 토끼의 먹이인 당근을 사 오면 이곳 토끼생태학습장에서 마음 편하게 토끼에게 먹이를 줄 수 있다. 토끼는 건조한 채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당근 혹은 양배추를 구매해서 먹이로 주면 아주 좋다.

초등학생인 두 아들이 토끼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방문자센터에서 당근을 구매하여 먹이 주기 체험을 하였다. 특히 아이들이 토끼에게 먹이를 줄 때 토끼의 입에 물리지 않도록 울타리를 촘촘하게 빈틈이 없도록 조치해 놓아서 안전도 크게 신경을 쓴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재미있는 동물체험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허브정원>으로 향하게 된다. 허브정원에서는 말 그대로 다양하고 향긋한 허브꽃을 만나게 된다. 자연스럽게 활짝 핀 허브꽃의 향기를 맡으며 아름다운 꽃밭을 걷게 된다. 허브정원 주변을 산책하면서 중간에 나무 그늘 의자도 있어서 아이들이 쉬어가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를 알려주는 평택농업전시관

평택은 예로부터 산이 별로 없었지만, 곳곳에는 크고 작은 저수지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야가 넓게 발달하여 농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었다. 평택농업전시관에 들어서면 1층에서는 역사관을 관람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농업의

기원에서부터 선사시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와 변천 과정, 사계절에 따른 다양한 농업 활동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삼태기, 우마차, 거름지게 등 다양하고 친숙한 전통 농기구와 농촌의 생활용품을 만나볼 수 있다. 관람하면서 초등학생인 아들이 궁금한 농기구들이 많아 계속 질문이 이어졌다. 학창 시절에 농촌에서 생활했기에 누구보다 농기구는 잘 알고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아이들에게 농기구의 사용 용도를 잘 설명할 수 있었다.

1층 전시관의 오른쪽 부분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나볼 수 있다. 가구부터 식기, 접시, 전통 옷장(장롱), 결혼식에 사용하는 옛 폐백함(예물과 예단을 넣어두던 함)까지. 학창 시절에 시골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주로 농촌에서 사용했던 의식주에 관련된 다양한 생활용품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의 옛 생활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한편으로는 어릴 때 자주 보던 농기구를 다시 볼 수 있어서 고향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마지막 코너에는, 신나고 흥겨운 평택농악의 유래와 특징을 잘 전시해놓아서 평택지역의 농악인 웃다리농악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처럼 평택은 넓은 평야와 별관을 배경으로 농업이 크게 번창했고, 이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농악도 발전해 왔음을 전시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자.

2층으로 이동하게 되면, 미래관으로서 농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전시되어있다. 과거 농촌의 생활개선 및 기술 보급에 크게 이바지했던 4H 운동,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주고 있는 첨단 스마트 농업, 친환경 농업, 그리고 미래의 농업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관람하면서 가장 인상적이고 재미있었던 부분은 바로 <평택 스마트팜 체험>이다. 이곳에서는 터치패널을 이용해 스마트 온실을 직접 조직하고 제어하며 딸기농장을 관리하고, 소를 간접적으로 키워보는 농장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뒤편에서는 미래 스마트팜 전문가 체험으로서 VR기기를 통해 미래 농업과 4차 산업이 융합된 첨단 스마트팜 운영을 재미있게 체험해볼 수 있다.

관람하면서 4차 산업 대두와 함께 농업도 이제 미래의 직업으로 떠오른 직업군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마을기업 운영자와 곤충 전문 컨설턴트이다. 마지막 코너에는 평택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을 만나볼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로컬푸드 종합센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평택시의 대표 농산물인 쌀, 배, 토마토, 애호박,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만나볼 수 있다.

2층을 관람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조선시대 최초의 온실인 '창순루' 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창순루' 에 대

한 기록은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오래된 책인 '산가요록' 이라는 음식책에 기록되어 있다. '산가요록' 은 우리나라에서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가지고 다양한 조리법을 기록하여 집대성한 농촌생활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조선시대에도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혼이 담긴 온실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매우 신기하게 느껴졌다.

농업전시관을 나오면 바로 옆에 <야외 전시관 및 천연염색 체험장>이 있는데, 마당에는 총 23종 77기의 다양한 장독대와 연자방아, 돌절구 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주로 장작 패기, 옷놀이, 투우 던지기, 고리 던지기 등 다양한 전통 놀이 체험장과 천연염색 전시관이 있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이 피는 정원, 자연테마식물원

평택농업생태원의 마지막 묘미는 바로 <자연테마식물원>이다. 자연테마식물원에 들어서면 마치 작은 온실에 온 것처럼 산뜻하고 향긋한 꽃향기에 흠뻑 취한다. 아름다운 꽃과 싱싱한 푸르름이 가득한 자연테마식물원은 어느 계절에 방문해



도 항상 예쁜 꽃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무척 매력적인 장소이다. 실내에 핀 예쁜 꽃들은 기본이고 다양한 종류의 선인장 등 평소 주변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아열대식물과 허브 식물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마치 열대우림에 와 있는 것처럼 풋풋한 풀 향기가 가득한 곳이다. 특히 다육식물, 바나나 나무, 야자수 나무, 구아바 등 다양한 열대식물을 만나볼 수 있다. 식물원에는 우리나라 자생식물 55종, 아열대식물 63종, 양치식물 4종, 허브식물 5종, 다육식물 44종 등 무려 171종 5,300여 본에 이르는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다.

중간마다 인공조형물인 코끼리와 토끼도 볼 수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숲속에 숨겨진 동물을 찾아보는 이색적인 재미도 느낄 수 있다. 걷다가 힘들면 벤치에 앉아서 잠시 숲의 향기에 취하며 명상을 하면서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참 좋다. 특히 자연테마식물원은 다른 식물원처럼 비싼 입장료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은 공간이지만, 아기자기하게 다양한 열대식물과 선인장, 그리고 예쁜 허브꽃을 잘 배치하여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아이들과 손잡고 유익한 가을꽃 나들이, 평택시 농업생태원

가을은 국화꽃과 코스모스 등 아름다운 꽃이 피는 계절이기 때문에 나들이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다. 가장 먼저 가을이 오는 모습을 만끽하고 싶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평택시 농업생태원으로 가보자! 그래서形形色색의 다양한 꽃, 아름다운 경관 농업의 가치, 대자연을 주제로 한 다양한 볼거리, 체험 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가 평택시 농업생태원에는 무궁무진하다.

특히 평택시 농업생태원은 주차 및 입장료가 무료이며 주차 공간도 크고 넓어서 아주 편리할 뿐만 아니라 오성IC에서도 가까워 접근성도 매우 우수하다. 나들이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인 가을을 맞아 이번 깊어가는 가을인 9~10월경에 가볼만한 가을 여행지로 국화꽃과 코스모스 향기가 가득한 평택시 농업생태원을 추천한다.

다가오는 10월 말에는 <제2회 평택 가을 수확 축제>가 다

시 열린다. 신기한 벼 탈곡 및 재미있는 인절미 만들기 체험이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깊어가는 가을,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대자연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운 경관 농업의 가치를 흠뻑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평택시 농업생태원/농업전시관/자연테마식물원/ 모루마루 반려견 놀이터 이용 안내

운영시간 정보	
주차 및 입장료	무료
하절기(3~10월)	09:30 ~ 18:00
동절기(11~2월)	09:30 ~ 17:00
휴무일	1월 1일, 추석 및 설날 당일 /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휴관)

■ 평택시 농업생태원/평택농업전시관/자연테마식물원/ 모루마루 반려견 놀이터 가는 길

주소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34 (평택시 농업생태원)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58 (모루마루 반려견 놀이터)
버스
명성빌라 하차 도보 10분 거리
자동차
경부고속도로 안성IC에서 안중 방향(국도 38호) 29km 지점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에서 오성IC(안중 방향 출구) 3km 지점

글 이우진

대학에서 영어영문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는 일반사회교육학을 전공하였다. 2021년부터 평택시정신문 <굿모닝평택>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 교육정책 및 교육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문화운동과 ‘용인문학’의 산증인 시인 김종경

박기정



김종경 시인

선후배 문화예술인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였다. 초창기에 함께 했던 인물들은 현재 연륜 때문에 활동이 저조하거나 외지로 이사했다. 그의 리더십은 오늘날까지 단절되지 않고 30년 세월이 넘게 이어지는 활동이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김종경 시인을 지켜본 용인사람들은 김종경과 용인문학을 떼어놓질 못한다.

태성고등학교 시절, 본격적 시 창작과 진보문예운동 시작

김종경 시인은 용인 출생으로 향토문학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2008년 계간 ‘불교문예’에 시로 등단(심사위원 도종환·공광규)해 ‘기우뚱 날다’(실천문학사, 2017)와 ‘저물어 가는 지구를 굴리며’(별꽃, 2022) 등 2권의 시집을 펴냈다. 시뿐만 아니라 사진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독수리 작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강화도 더리미미술관, 하이원리조트, 국회의사당 등에서 2년여에 걸친 초청전을 가진 바 있다. 그 무렵 포토에세이 ‘독수리의 꿈’(북앤스토리, 2016)을 펴냈다. 이에 앞서 용인 오일장 사진집인 ‘용인 오일

문화예술 분야가 초라하기만 했던 1980년대 용인군 시절. 용인지역 향토문학의 맥을 살려내 지역 문화예술계를 활성화 시키는 데 한몫했던 인물이 있다. 오늘날 용인문학을 꽃피우게 한 김종경 시인이 주인공이다. 김종경 시인은 고교 시절부터 시를 썼고, 20대 청년 시절인 1980년대부터 치열하게 용인문예운동에 앞장섰으며, 1996년엔 ‘용인문학회’를 창립하고, 대중적인 종합문예지 ‘용인문학’을 창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대 초반, 용인지역 문화예술계에 중추적 인물로 뛰어든 그는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통솔력 때문이었는지 당시



첫 시집 '기우뚱 날다'



두번째 시집 '저물어 가는 지구를 굴리며'



계간 '불교문예' 시 당선 시상식 후에 단체 사진 촬영. 뒷줄 중앙이 김종경 선생이며 조계종 총무원장과 김홍신 작가 등과 함께.



제1회 용인문학의 밤

장 사람들'(북앤스토리, 2011, 비매품)을 펴냈고, 당시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과 친구였던 고 김윤순 관장 초청으로 용인 마북동에 위치한 한국미술관에서 2달여 간 초청전을 열었다.

김종경 시인은 원래 미술가를 꿈꿨다. 태성중학교 시절 미술부 활동을 하며 화가의 꿈을 가졌으나 가정 형편상 중도 포기했다. 열정적이던 미술부 담당 선생님은 용인지역 미술 인재를 키워 용인의 미술계를 형성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교사로 당시 김종경을 주목했다. 그러나 작고한 김 시인의 아버지는 미대를 가려면 큰돈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 몰래 미술 선생님을 만나 미대 진학을 포기시키고야 말았다. 평생 용인의 운학동 산골 마을에서 힘겹게 농사를 짓던 아버지는 미술 잘하는 아들이 큰 걱정거리였던 것이다. 김종경 시인은 이때 미술에 대한 꿈을 접고 돈이 들지 않는 문학으로 방향을 바꿨다. 미술반에 들어가기 전에는 서예반 활동을 했다.

김종경 시인은 태성고등학교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 습작을 시작했다. 당시 문예반을 맡았던 국어 교사이자 초현실주의 시인으로 알려졌던 송상욱 시인의 칭찬에 들떴던 시절이었다.

“당시 저는 참여적인 시를 썼어요. 지금도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어린 시절에는 보다 직설적이고 강한 면이 있었다고 봐요. 당시 80년대는 그야말로 격동의 한국 정치사가 쓰여지고 있던 시절이었고 그런 부분에 관심이 컸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아주 난해한 모더니즘 성향의 글도 썼던 거 같아요.”

지금은 지역 사회에 전설같은 이야기로 전해지지만,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메가폰을 잡고 학내시위를 주동해 학교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 학교 입장에서 김종경 시인은 모범생이자 문제 학생이었다.

그 당시 용인지역에 진보적 정치운동단체가 있었다. 김 시인은 짧은 시간이나마 그들과 함께한 적이 있다. 그러다가 별도의 조직에서 전국노동자 문예조직 건설을 위해 활동했다. 그때 ‘노동자’ 중심의 문예운동보다 ‘지역’ 중심의 문예운동의 필요성에 갈급했기 때문에 고향인 용인에서 대중 속에 뿌리 내리는 ‘진보문예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김 시인이 중심이 돼 ‘용인문예운동협의회’라는 용인지역 최초의 문예단체를 만들게 됐다. 그때가 1990년대 초반이었고 조직을 갖춘 용인지역 최초의 문예단체였다.

용인 최초의 문예운동단체 ‘용인문예운동협의회’ 창립

김 시인의 ‘노동자 문예조직’ 활동기와 같은 시기인 1980년대 말에 용인에는 ‘서정 3세대’라는 시동인이 결성됐다. 주로 서정시를 쓰는 동인이었는데 카페 ‘동인’에서 모임을 가졌다. 1989년, 김 시인은 지역 사회 선배들로 구성된 ‘서정 3세대’ 멤버로 합류했다. ‘서정 3세대’ 시 동인 활동은 김 시인에게 진보적 단체 외에 용인이라는 지역사회 속에서 본격적인 시 쓰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지역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반이 됐다.

‘서정 3세대’가 결성하는 데는 1984년에 용인문화원에서 창간한 ‘용구문화’라는 계간지가 계기가 됐다. ‘용구문화’ 지면에 시를 발표했던 시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게 ‘서정 3세대’다.

1980년대의 용인군은 문화예술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당시 ‘용구문화’는 용인지역 예술가들에게 유일한 발표 창구 역할을 하면서 문화예술을 태동시키는 모체였다.

“그때는 용인지역이 문화예술의 황무지나 다름없었어요. 학교 교지 외에는 문예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던 차에 ‘용구문화’는 숨통을 트여 주는 역할을 했어요. ‘용구문화’가 나오기 전에는 지역에서 문예 지망생들이 작품을 발표할 지면이 전혀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문예 지망생은 중앙에 올라가 활동을 해야 했는데 쉽지가 않았겠죠. 모두가 목말라하던 때에 ‘용구문화’가 나왔으니 가뭄에 단비처럼 당시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지면에 작품을 발표하게 됐어요. 당시는 출판이 대중화되기 전이었고, 그러던 차에 ‘용구문화’는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점이 됐죠. 문학 지망생을 위한 ‘용구문단’을 비롯해 ‘꽃꽂이’ 등의 코너가 운영됐는데, 그렇게 몇 회 진행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호인들이 분야별로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그림전, 사진전, 서예전, 꽃꽂이전을 하게 됐어요. ‘서정 3세대’도 ‘용구문화’ 지면에 시를 발표하던 문학 동호인이 모인 거예요.”

김 시인은 ‘서정 3세대’에 합류해 동인 시집 2집과 소시집, 그리고 마지막이 된 3집을 함께했다. 서정 3세대는 총 3집까지 시집을 내고 사라졌다. 직장 이동 등의 이유로 ‘서정 3세대’가 해체되자 1990년에 김 시인은 용인 최초이자 유일한 문예운동 단체인 ‘용인문예운동협의회’를 창립해 이끌면서 사회참여적 시작(詩作) 활동과 함께 진보적 문화예술 단체 활동으로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용인문예운동협의회’에는 김 시인이 주축이 돼 선후배 공무원까지 참여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회원층을 확보했다. 이같은 적극적 행보는 정보과 요시찰 단체로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정보기관들이 내사를 했고, 심지어 기관지 ‘늘푸른

소리’ 인쇄처를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 결과 자연스럽게 공무원 회원들의 출입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문학분과 회원들은 별도의 시 동인을 만들어 소시집을 발간했어요.”

깨어있는 청년들의 문예단체였던 ‘용인문예운동협의회’는 당시 지역 지식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으며, 기관지 ‘늘푸른 소리’를 3호까지 발행했고, 소시집 등으로 족적을 남겼다.

“당시 용인문예운동협의회 문학분과 회원들은 민중문학, 사회 비판적인 참여시를 썼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93년에 통권 3호를 발행하면서 특집으로 ‘용인지역 문화예술인식을 듣는다’를 실었어요. 그때 문학 부문은 ‘용인지역 문화에 대한 소고’를, 미술 분야는 ‘미술은 삶의 표현이다’를, 음악은 ‘지역 문화와 음악발전을 위한 제언’, 극 분야는 ‘용인의 극예술 발전을 위한 제언’, 언론은 ‘대중문화의 비판의식과 지방정치 및 지역신문의 책임’ 등을 실었어요. 당시는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식을 깨우기 위한 활동을 하던 태동기였다고 봐요.”

용인문예운동협의회는 당시 김량장동에 사무실이 있었다. 용인문예운동협의회는 수년 동안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320-4번지 일원 옥탑방과 김량장리 일대 지하사무실을 전전했다.

“그때는 용인군 시절이었어요. 재정 부분이 열악했죠.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무실 임대료를 책임졌죠. 난생 처음 건물 보증금 명목의 금융권 부채를 떠안아야 했지만 아름답던 청춘의 시절이었어요. 물론 저만의 노력이 아니라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서정 3세대’와 ‘글페이물’ 등의 활동 성과물이라야 시집 몇 권과 마스터 인쇄 수준의 어슬픈 소시집이 전부였지만 회원들의 열정은 엄청났죠. 그것도 지역 내 카페나 서점, 혹은 지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 위



첫 시집 기우뚱 날다 북콘서트 후 단체 사진



계간 ‘불교문예’ 시 당선 시상식 후에 단체 사진 촬영. 뒷줄 중앙이 김중경 선생이며 조계종 총무원장과 김홍신 작가 등과 함께.



‘용인 오일장 사람들’ 사진시집



김종경 시인이 촬영한 용인 오일장 사진들

해 만든 것들이에요. 지금처럼 인터넷과 SNS를 통한 문학 활동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야말로 아날로그 시대였어요.”

용인문예운동협의회 청년들의 지역문화운동이 소문이 나면서 당시 지방일간지인 경기일보에도 게재가 됐다. 그런 움직임이 용인지역 문화예술계 태동에 자극제가 됐다.

1996년 5월 18일, 향토문학단체 『용인문학회』 창립

김종경 시인은 용인문예운동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지역신문인 현 용인신문 전신 주간 성산신문사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아 수차례 거절하던 끝에 1994년 초 언론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그때 지역 언론 역시 지역문화운동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용인문예운동협의회가 추구했던 지역문화운동의 가치와 의식이 비슷하다는 생각도 했죠. 재정적 문제도 있었지만 어쩌면 이로 인해 용문협은 자연스럽게 해체의 길로 들어섰고, 저는 책임 의식과 아쉬움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용인문예운동협의회 문학분과 멤버들을 중심으로 대중문학단체를 설립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행히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죠. 지역 내에 거주하는 문학인들을 수소문해서 현 김량장동 롯데시네마 건물 건너편 지하에 ‘사랑방’이라는 제법 깨끗한 다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첫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때가 95년 말에서 96년 초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김 시인은 1995년 말부터 1996년 초에 문학단체 창립 건으로 현 한국작가회의 소속 김종성 소설가와 한국문인협회 소속 조선희 작가 등과 자리를 마련했으나 의견충돌이 생겨 첫 모임부터 깨졌다. 그 즈음 용인지역에 문화예술계가 태동하기 시작했다. 1996년은 용인군이 인구 30만 명을 돌파하면서 용

인시로 승격됨과 아울러 정신문화를 이끌어갈 문화예술 분야의 낙후성에 대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미술협회 용인지부가 1996년 2월에 창립했고, 용인예총(1998년 창립) 전신 격인 용인예술인협회가 1996년 10월에 만들어졌다. 용인예총의 경우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행정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전문 문화예술단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문화예술계와 정치권 인사들이 중심이 돼 창립하게 됐다.

당시 김종경 시인은 다양한 문학단체 형태를 모색하면서 (사)한국문인협회 용인지부 준비모임을 꾸리기도 했다. 그러나 참가자들의 격론 끝에 순수한 향토문학단체로 활동하자는 데 대의가 모였다. 1996년 5월 18일, 마침내 독립적 자생 향토문학 단체인 ‘용인문학회’가 창립됐고 김종경 시인이 초대 회장에 추대됐다. 서정 3세대 멤버들과 용인문예운동협의회 문학분과 멤버들이 중심이 됐으나 이들 중 개인 사정이 생겨 함께 하지 못하거나 문인협회 쪽으로 옮겨가는 인사들도 있었다. 부회장은 수지에서 활동하던 주영숙 씨가, 상임고문에는 소설가 김종성 씨가, 고문에는 당시 명지대 교수였던 박범신 작가와 강남대 홍순석 교수 등을 추대했다. 통일시인인 고 이기형 시인도 작고 전까지 오랫동안 용인문학회 주요 멤버로 함께했다.

“저는 지역 문학단체지만 지역에만 국한하는 좁은 틀에 매이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용인문학회를 이끌어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진보문학단체도 이끌어봤고, 순수 동인 활동도 했던 경험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포괄할 때 생명력 있고 막힘이 없는 창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 작가들을 모시는 힘도 생겨났죠.”

창립 당시 용인문학회 공간은 시청 근처에 마련했다. 김종경 시인은 창립 초창기에 사무실 월세로 힘들어지자 당시 양승학 용인시의회 의장과 상의했다.



독수리 결작 사진집으로 유명한 포토에세이집 '독수리의 꿈'



용인문학 창간준비호



용인문학 창간호

“양 의장님은 지역 선배인 허원형 씨를 소개해 주셨어요. 허 선배는 아무 조건 없이 선배의 건물 지하를 내줬어요. 지금까지 관리비 명목의 실비만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허원형 선배야말로 문학회 1등 공신이죠.”

시창작아카데미 운영으로 등단 시인 배출 명성

용인문학회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 문학의 밤, 문학기행, 시창작아카데미, 전국신인상공모, 남구만 문학제, 학술대회, 중앙 시인 초청 문학강연회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지역문화예술의 한 축으로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다. 특히 김종경 시인은 명망있는 작가들을 초청해 교류하면서 용인문학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1998년에 전국신인상 제도를 운영하다가 2018년부터 의령 남씨 문중 후원으로 약천 남구만 신인문학상 전국공모전으로 명칭을 바꾸고 상금을 500만 원으로 올려 용인에 우거했던 약천 남구만 선생을 기리고 있다. 남구만 신인 문학상과 약천 문학제를 통해 지역 문학의 뿌리를 견고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2007년 개강한 시 창작아카데미는 1, 2학기 각 16주 강의를 통해 중앙문단에 등단한 다수의 시인을 배출하였다.

최근에는 ‘문통’, ‘언문지’ 저자인 조선 후기 실학자 류희 선생이 남긴 시문학에 관심을 두고 류희 시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류희 문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준비 중이다.

“류희 선생은 용인 태생이며 용인에 잠들어 있는 분으로



국립과학관 '독수리의 꿈 김 Jong-gyeong 작가 초대 사진전' 장면.



국립과학관 주최 독수리의 귀환전 개막식 테이프 커팅 장면. 우측 끝 김종경 작가.

1500여 수의 시를 남겼고, 조선에서도 드물게 15권의 시집을 발행한 시인이었습니다. 용인의 문학의 중요한 원류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용인문학』지 창간부터 현재까지 결호 없는 저력 과시

용인토박이 김종경 시인은 현재까지 종합문예지인 ‘용인문학’의 발행인으로서 회원들의 예술정신의 결정체인 문예지 발간을 용인문학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있다. 회장은 임기제이지만, 문학지 발행만큼은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맡음으로써 폐간되거나 휴간하는 일이 없이 안정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다.

1996년 창간준비 1, 2호 이후 1997년 창간호를 낸 후 반연간지로 변모한 ‘용인문학’은 2023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결호 없이 발행하고 있다. 전국에 수많은 동인지가 생겨나고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 폐간되거나 결간을 밥 먹듯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무엇보다 지난 2009년부터는 1년에 상하반기 2번씩 책을 내는 반연간지 형태로 출간해 현재 통권 제41호를 펴내는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인터넷서점을 통해 전국에 판매할 정도로 지역과 중앙문단의 풍성한 입을 거리와 높은 수준을 갖춘 ‘용인문학’은 용인의 대표적 문학지이자 회원들의 자부심으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도록 열정과 노력을 쏟고 있다.

글 박기정

서강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대 대학원에서 공공감사정책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사주당의 태교신기, 김윤후, 처인성 등 지역학을 연구하고 있다.

전국에서도 유명세를 과시하고 있는 ‘용인문학’은 편집위원들과 회원의 손길로 창간 이래 수많은 기획 특집 등을 다뤘다. 창간 특집호에 용인지역에 솔하게 남아있는 문학비 순례를 시도해 지역 문학의 정체성과 계통을 세우는 데 기여했고, 용인의 문학 순례길을 개척해 특집으로 다뤘다. 용인문학회 회원 모두가 용인을 소재로 하는 시, 소설, 수필 등 특집작품을 신는 등 회원 스스로 향토 시인임을 잊지 않고 있으며 용인문학회 회원이라는 자부심이 크다.

김종경 시인은 단국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6년부터 한국작가회의 회원과 (사)한국환경사진협회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한국환경사진협회 용인지회장으로 추대됐다. 앵글에 담긴 자연의 모습을 시로 형상화하고 있는 김종경 시인은 동화와 동시 등 아동문학으로 장르를 확대해 활동하고 있다. 지금도 그는 언론인이자 출판인으로, 문학인이자 사진작가로 지역의 문화와 예술 발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 버섯 분류학의 선구자 김양섭 박사(2) “테니스를 하십니까? 버섯 채집 다닙니까?”

김예옥

필자는 『경기학 광장』 2023년 봄호에 버섯 분류학자 김양섭-석순자 박사의 인터뷰를 게재한 바 있다. 버섯 분류학의 선구자인 두 사람은 농촌진흥청의 버섯 황금기를 이끈 주역이었다. 자신들이 30년간 국토를 종횡무진하며 채집한 버섯 표본 수십만 개가 관리되지 않은 채 농진청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에 우려를 금치 못하던 김양섭 박사의 얼굴이 어른 거러 필자는 다시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도 버섯 표본을 산림청에 이관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현재 시급한 것은 생명공학 연구에 필요한 균주를 연구하고 배양하는 전문기관의 설립이라고 말했다.



요즘 근황을 말씀해달라.

손주들 보고, 집안일도 돕고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직접 식사를 준비해서 집사람과 같이 먹고 설거지도 한다.

대단하시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계신가?

젊은 시절에는 (버섯을 연구하느라) 전혀 못 도와줬다. 그제 집사람한테는 커다란 공백으로 남은 것 같다. 집사람이 뭘 보든지, 듣든지 그 근원을 따져나갈 때 최종적으로는 다 내가 집안일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남은 생이라도 잘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집안일 돕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니 어렵지 않다.

손주들은 초등학교인데 남자만 셋인 삼쌍둥이이다. 손주들 공부를 봐주는 것도 내 몫이다. 최근 여름방학이었을 때는 아들 집에 가서 손주들과 수업을 하고, 게임도 같이 하고선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점심을 먹는다. 식사가 끝나고 하루 2페이지씩 7과목의 문제집을 매일 풀고,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한다.

손주들을 데리고 희로애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그렇게 생활에 활력이 될 수가 없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음식을 할 때면 주방에 들어가서는 할머니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먹을 때도 반드시 어른이 수저를 든 다음에야 수저를 든다. 아빠가 퇴근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 할머니가 뭘 사주면 항상 “네” 하면서 가져간다. 아빠 주려고 그런다. 그걸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부엌에서 반찬도 없이 혼자 드시는데



우리나라 버섯 연구의 선구자 김양섭 박사의 최근 모습

일부러 음식을 남겨서 엄마를 드시게 했던 게 생각난다.

한번은 이빨이 드라큘라같이 생긴 손주한테 치과에 데려가 치열을 고르게 하는 치료를 해주었더니 그 애가 목욕을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더라. 아마 이빨 때문에 말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고쳐주니까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다.

그런 데서 가족애를 느낀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린 손주 세대와 자식 세대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 같다. 실버타운에 노인들만 있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노년이 외롭고 쓸쓸하고 활력이 없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복 받으신 것 같다.

그렇다. 어디서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몸이 아직 건강해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더욱 좋다. 전에는 손주들이 다녀가면 집이 폭탄을 맞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정리하고 간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나가니까 테니스를 안 쳐도 아무 문제가 없다.

테니스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다.

30대 초반부터 테니스를 쳤고 배구와 탁구 같은 운동도 다 좋아했다. 농촌진흥청에서 1년에 한 차례씩 부처 대항을 하는데 그때마다 진흥청 대표로 뽑혀 대회에 나갔다. 그래서 지금도 농진청의 옛 동료들은 나를 만나면 2가지를 물어본다. “테니스를 하십니까? 버섯 채집 다닙니까?”라고.

왜냐하면 테니스는 농진청에서 알아준 것이고 버섯은 매년 균학회에서 버섯채집대회를 할 때 우리 팀의 열성에 사람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각 대학의 교수들이 학생들과 버섯대회에 와서 채집을 하고 그제 끝나면 보통 술 먹고 여흥을 즐기는데 우리 팀은 새 버섯이 발견되면 새벽 1~2시까지 작업을 해야 했다. 그래서 학회에서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술도 못 먹고 밤 늦게까지 일하느라 쉴 틈이 없다”며 인정을 한 것이다. 버섯학회와 균학회에서 1년에 1차례씩 채집을 시행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 한번은 어떤 교수가 지역의 주민들을 시켜서 버섯을 채집해놓고 우리가 분류를 해주니까 그 버섯을 모 제약회사에 제공을 했더라. 제약회사에서는 처음 버섯에서는 유효성분이 나왔는데 나중에 그 교수가 따서 보낸 버섯에는 그런 성분이 없다고 우리 팀에 연락을 해왔다. 그래서 우리 쪽 버섯을 보냈더니 유효성분이 나왔다고 했다. 그런 연구를 하면서 그 교수는 공동연구라는 걸



갈황색미치광이버섯

독버섯, 주로 그루터기 부근에 다발성으로 발생하며 쓴맛이 있다. 북한에서는 웃음독버섯이라 함. 안전교육이 경직되어 웃는 모습을 보이는 데서 유래



색시줄각버섯

식용, 자실체는 줄기줄기하고 잘 부서지지 않음. 갓 표면에 방사선으로 홈선이 있음.



족제비눈물버섯

식용. 갓 표면에 백색 분질물이 산재해 있고 대속은 비어 있으며 손으로 분지르면 푹! 소리가 나며 부러진다.

밝혔어야 하는데 혼자서 한 것으로 했다. 그 다음부터 그를 학회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 그 교수는 남을 시켜서 버섯을 따온 것밖에 한 것이 없었다.

지난 번 인터뷰 때 세 가지 아쉬움을 토로하셨다. 하나는 농촌진흥청에 있는 버섯 표본을 산림청으로 이관해 줄 것, 그리고 학문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제자인 석순자 박사가 버섯연구에 더욱 전념할 것 등이었다. 그 사이 거의 1년여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개선된 게 없나?

그렇다.

그중에서 제일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정부 차원에서 균주보존센터를 설립해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지금 인류가 직면한 4가지 난제, 즉 식량, 질병, 연료, 생활환경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생명공학(genetic engineering)인데 이 연구를 하려면 원재료(균주)가 필요하다. 코로나 백신 개발도 그 핵심 재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균주보존센터에서 균을 보존했다가 백신 개발에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환경 오염을 해결하려면 미생물 중 최적의 균으로 분해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역할까지 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나?

버섯 분야의 연구는 없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석순자 박사가 퇴직하고는 대가 끊겼다. 우리가 균을 -18℃~-196℃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을 분리해서 보존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을 받아서 할 곳이 없다. 그런 일을 하려면 분류 동정(同定)을 해야 하는데 체계적으로 하는 데가 없다.

참 마음이 아프시겠다. 다른 어디라도 연구하는 곳이 없나?

광릉산림연구원에는 학위를 받은 연구원이 있는데 종 분류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인가?

진흥청에서는 대가 끊어졌고 다른 기관에서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환경부 생물자원부에서 우리나라 모든 생물 종을 관리하는데 그곳에도 버섯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 그렇게 되고 있나?

다른 식물이나 곤충은 돋보기 정도만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런데 버섯, 곰팡이는 그 형태적 특징 중에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위가 있고 그 부위에서 더 미세구조를 관찰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현미경으로 6백에서 1천 배 확대해서 보면 별의별 모양이 나타난다. 미세구조가 주발형인지, 스폰형인지, 아니면 돌이 섞인 형인지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구분할 방법이 없다. 대부분 사람들이 현미경 보기를 꺼린다. 현미경으로 보려면 미세구조를 얇게 잘라서 배열을 관찰하고 안 보이면 염색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은 배울 수가 없다.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야 가능하겠다.

그렇다. 시약 만드는 것부터 사용법을 정확히 배워야 하고, 시약 반응이 어떤 색깔로 나타나는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포자도 반응을 보게 되는데 아밀로이드, 위 아밀로이드, 인 아밀로이드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그걸 못하면 더 나갈 수가 없다.

배울 수만 있다면 흥미를 갖는 사람들도 있겠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다. 바이오블리츠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어느 지역을 선정해놓고 조류학자, 곤충학자, 파충류학자 등 생물 전문 분류학자와 지역주민이 24시간을 한 지역에서 채집해 어떤 종류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10년 후 조사하여 10년 전의 조사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 참여했던 학생들 중에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버섯을 조사하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런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하나?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그 기관들이 움직이려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야 한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이다. 물론 산림청도 절박하면 농진청을 찾아가 표본자료를 넘겨달라고 말할 텐데 그런 관심도 절박함도 없다. 어느 대학교수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퇴직하면 거기서 연구가 끊긴다. 대를 이어서 할 교수가 없다.

제약회사 같은 곳에서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하면 안 되나?

그렇게 투자하는 곳이 없는 것 같다.

40년간 버섯을 채집한 곳은?

전국의 웬만한 산은 다 가봤다. 제주에서 설악산까지.

우리나라는 버섯이 많이 나타나?

4계절이 뚜렷해서 다양한 버섯이 나온다.

몇 종류나 되나?

그게 참 애매하다. 우리가 30년 동안 약 1,200~1,300종을 조사했다. 그래서 밝혀진 게 1,400종 정도다.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버섯을 발견하면 논문으로 발표해야 하는데 아마추어들이 발견해서 도감에 실거나 사진과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과학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표본이 있으면 후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표본이 없는 경우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



노루궁뎅이버섯

식용, 죽은 참나무 잘린 부분에 붙어서 자란다. 털이 복슬복슬한 모습이 노루영뎅이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등면을 제외한 전면에 하얀 털이 무수히 나있어 고슴도치 형상을 하고 있다.



잔나비불로초(잔나비결상버섯)
약용, 자실체는 반원형으로 자라며 다년생이다.



영지버섯
일명 불로초. 대표적인 약용버섯. 주로 썩은 참나무 그루터기나 주변에 올라오는 1년생 버섯으로 표면이 옷칠을 한 것 같은 붉은 광택이 난다.



노랑망태버섯
식용. 여름과 가을에 두 번 나며 숲속 땅에 홀로 나가거나 무리를 지어 난다.

1,400종이라면 버섯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나?

우리나라에 버섯이 5,000종 정도 있다고 가정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종이 많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도 있다. 그동안 서울 난지천, 노을공원, 하늘공원, 평화공원을 조사했는데 그곳에서도 미기록종이 꽤 많이 나온다. 그 좁은 곳에서도. 그러니 우리나라 산 어디를 가도 새로운 종이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산천에 나는 버섯 중 30~40퍼센트를 발견했다고 보면 된다.

버섯의 생존 주기는?

나와서 몇 시간 자라는 것도 있고, 2~3일이면 없어지는 것도 있다. 보통은 며칠 못 간다. 1주일 전에 채취하고 1주일이나 열흘 후에 가면 다른 종류의 버섯들이 짝 나와 있다.

다년생 버섯도 있다. 나무진흙버섯이나 결상버섯, 상항버섯이 다년생으로 매년 조금씩 자란다.

버섯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먹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식용버섯과 독버섯은 어떻게 구분하나?

버섯의 유액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면 매운맛도 있고 쓴맛도 있으며 그냥 밍밍한 것도 있다. 다른 균학자들이 책에 이미 밝혀놓은 것들은 그냥 통과하기도 하고 기록을 위해 다시 맛을 보기도 한다. 어떤 것은 굉장히 맵다.

매운 버섯은 먹을 수 있나?

독이 아니니까 먹을 수 있다.

독버섯은 맛을 보는 것만으로 다 감별할 수 있나?

그렇게 감별하지는 않는다. 버섯의 2분의 1이나 4분의 1 아니면 전체를 먹어서 위험한지를 알아낸다. 4분의 1을 먹으면 고생은 하는데 죽지는 않는다. 그런 방법으로 테스트했다는 기록이 있다. 내가 일본에 연구하러 갔더니 교수와 학생이 각서를 쓰고서는 버섯의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등으로 나누어 먹고서 기록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독버섯을 구별하는 방법은?

별로도 없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버섯 애호가들이 버섯을 먹고 중독사고를 일으킨다. 그 원인은 잘못된 구별법이 민간에 전해 내려오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색깔이 화려하거나 빨간색이면 무조건 독버섯이라고 했다. 또 대에 띠가 있거나 대를 찢어 결대로 찢어지면 먹을 수 있고, 벌레가 먹는 것은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맞지 않다. 화려한 것 중에도 식용이 있고, 또 대에 띠가 있어도 맹독성인 경우가 있다. 결대로 잘 찢어져도 맹독성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민달팽이나 곤충도 먹는다. 그러니까 그런 걸 믿고 먹으면 중독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람도 얼굴만으로 그가 착한지 강도인지 범죄자인지 모르지 않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버섯도 동정(同定)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동정이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과 같다. 계·문·강·목·과·속·종 중에서 마지막 판정을 정확히 하면 무슨 종인지 나오고, 그 이름을 찾아보면 독인지 식용인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독버섯과 식용버섯의 구별 방법을 정리했다. 버섯 중독사고가 나면 대칭되는 버섯사진을 같이 붙여놓고 두 버섯 간의 서로 다른 점과 핵심 포인트를 나열해놓는다. 내가 농진청에 재직할 때는 독버섯 중독에 관한 보도가 나오면 무조건 찾아가서 환자를 만나고 채집했던 지역을 찾아가 버섯을 채집했다. 그렇게 해서 이미 독버섯에 대한 것은 정립돼 있다.

그렇다면 연구가 안 된 버섯을 먹고도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사고가 났던 버섯 유형이 밝혀져 있어서(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독버섯 중에서도 맹독성 버섯에는 어떤 것이 있나?

붉은사슴뿔버섯이 대표적이다. 이걸 어린 상태일 때는 영지버섯과 유사해서 영지버섯인 줄 알고 먹었다가 중독사고가 일어난다. 의학계에서는 예전에 영지버섯을 먹고 중독사고를 일으킨다는 논문이 여러 편 발표되었다. 그래서 석순자 박사가 의학 심포지엄에 가서 그건 영지버섯이 아닌 그와 유사한 형태의 붉은사슴뿔버섯이라고 발표한 이후 의학계에서도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붉은사슴뿔버섯은 4분의 1이 아니라 맛을 봐서도 안 된다. 맹독성이다. 트리코테센이란 독성인데 지구상의 생물체가 내는 3개의 독성 중 가장 강한 것이다.

선생님은 맛을 보셨나?

맛을 보기 위해 살짝 혀를 댔다. 쓴지 매운지 보기 위해. 그런데 아무 맛도 없었다. 다른 직원들한테도 맛을 보라고 했는데 1주일 정도 지난 후 목이 부어올라서 혼났다. 트리코테센은 곰팡이 독성이기도 한데 과거 소련이 다른 곰팡이에서 추출해 월남전에 사용한 적도 있다.

그 외의 다른 맹독성 버섯은?

독우산광대버섯(아마니타 비로사)이 있다. 아마니틴이라는 독성이 간세포를 꽉 잡아 활동을 못하게 해서 간세포가 망가진다. 그런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증상은 7-8시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 사망할 만큼의 버섯을 먹었다면 살릴 방도가 없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간 이식을 할 때 버섯을 먹은 이들이 위급성을 다루는 0순위로 꼽힌다. 이 버섯에 들어있는 비로신이라는 독성은 말려서 보존해놓은 지 50년이 지난 버섯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독버섯은 안심할 수가 없다.

또 마귀곰보버섯(지로미트라 에스쿨렌타)은 모노메체하이드로진이라는 독성이 있는데 이게 휘발성이 강하다. 끓이면 휘발되기 때문에 조리를 하던 사람이 중독이 되기도 한다.

화경(火鏡)버섯도 독이 있다고 들었다.

독버섯이긴 하지만 맹독성은 아니다. 따서 부엌에 놔두었는데 어둠 속에서 인이 발산되어 반짝거린다고 해서 화경버섯이라고 한다.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버섯이다.

대표적인 식용버섯은?

식용버섯은 송이, 능이, 표고, 싸리 같은 것들이다. 다만 싸리버섯은 90퍼센트가 독버섯이다. 그런데 워낙 맛이 좋아서 유럽 문헌에도 먹는 법이 나와 있다. 소금물에 절여놨다가 그 이튿날 행구어 먹으면 아무 탈이 없다고 되어 있다.

싸리버섯의 경우 색깔이 여러 가지 종류던데?

노란색, 황금색, 붉은색, 보라색 등이 있다. 이중 보라색이 참싸리이고 이것만 독성이 없다. 그래서 소금물에 절일 필요가 없다. 참싸리는 대가 주먹처럼 굵고 나뭇가지처럼 줄기가 나뉘어 있는데 그 끝이 보라색이다. 다른 싸리버섯은 대가 그렇게 굵지 않다. 그래서 구별이 된다. 이 참싸리버섯은 너무 맛있다. 나는 송이버섯보다도 좋아한다. 살짝 데쳐 초고추장에 찍어먹으면 쫄깃쫄깃한 식감에 향도 있고 맛이 정말 좋다. 누구든 그것을 맛보면 최고로 칠 것이다. 다른 버섯은 그런 정도의 맛은 아니다.

언제 나오나?

가을에 나온다. 9월이 넘으면. 가을에는 식용이든 독버섯이든 많이 나온다. 종류가 다양하다. 추석을 전후해서 고향에 내려가고 그때 산행을 하면서 버섯을 따와서 먹고는 중독사고를 일으킨다.



아까시재목버섯

약용, 살아있는 아까시나무나 참나무에 버섯 것이 여러 개 겹쳐 큰 무리를 지어 자란다. 아까시나무에 큰 피해를 준다.

능이버섯은 어떤 것인가?

향이 있는 버섯이다. 중국에서는 향이(香茸)라고 한다. 보통 말려서 보관하는데 은은하게 향이 난다. 육류를 먹고 채했을 때 끓여 먹으면 체기가 가라앉는다. 소화와 관여하는 디아스타제가 많이 들어있다.

표고버섯이 대표적인 식용버섯인 것 같다.

그렇다. 표고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성분이 있어서 감기 걸렸을 때 끓여먹으면 효과가 있다. 과거 제주도에서는 광어를 기를 때 항생제 대신 표고버섯 가루를 사용했는데 물고기가 병도 없이 잘 자라서 일본에 비싸게 팔렸다.

식용버섯과 약용버섯은 어떤 차이가 있나?

식용은 직접 버섯을 먹는 것이고, 약용은 버섯 자체가 딱딱해서 달여서 먹는 것이다. 영지, 상황, 잔나비겉상버섯 같은 것들이 약용이다.

과거보다 인공 재배하는 버섯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농민들은 어려운 버섯도 다 재배하고 있다. 노루궁뎅이 버섯, 꽃송이버섯도 재배에 성공해서 비싸게 팔고 있다. 마트에 가면 재배 버섯이 10가지가 넘는 것 같다.

버섯을 인공 재배해서 키워먹는 것이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버섯은 물질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 몸에 들어가도 그런 분해를 도와줄 것이다.

글 김예옥

신문사에서 10년간 기자생활을 하고 이후 출판기획·편집자를 거쳐 글들읽다출판사 및 글들읽다 고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TRIP & HEALING

상수골 60번지 칼국수 전문점
'마지막 모습'이 서려 있는 임진강과 연천
'정려가 다섯 개~' : 안산 오정각

상수골 60번지 칼국수 전문점

신완섭



날씨가 찜뽀뽀한 날은 얼큰한 국물 요리가 제격이다. 취재차 멀리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20번길 60에 위치한 <상수골60번지칼국수전문점>을 찾았다. 전철 4호선 산본역을 출발, 창동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탄 후 덕정역에 내려 또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당도한 시각이 오후 2시경, 꼬박 2시간 반가량 걸린 긴 여정이었으나 '경기향토음식 소물리에'로 선정된 옥순애 대표의 손맛을 볼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레었다.



인기메뉴 ‘칼·만·죽’을 아시나요

식당을 들어서니 점심 식사가 막 종료되는 시각이어서인지 금방 다녀갔을 손님들의 식탁을 정리하느라고 여념이 없다. 개방형 주방 상단에는 ‘정성껏 만든 음식이 당신에게 소소한 행복이었으면 합니다’라고 쓰인 인사말이 정겹고, 바로 아래 메뉴판에는 단출한 예닐곱 가지의 음식 중 ‘칼·만·죽’이라는 특이한 메뉴가 눈길을 끈다. 그 아래 잔글씨로 써진 ‘바지락칼국수+찐만두+들깨죽’을 마저 읽고서야 세 가지 메뉴의 섞음 요리임을 알게 되었다. 주문하자마자 곧바로 밑반찬(배추김치·깍두기·생오이 등)이 깔리고 불판에 칼국수를 올려 끓이는 사이 찐만두 1개가 식탁에 올라오므로 식사 순서는 찐만두-바지락칼국수-들깨죽 순이다. 순서대로 맛볼 요리의 어원 및 역사, 특징을 간단히 소개해 보면

1. 고기찐만두

만두는 밀가루 등을 반죽하여 얇게 민 만두피에 채소와 고기 등의 소를 넣어 빚은 전통 요리이다. 우리말 ‘만두’는 바시 키르어·키르기스어·타타르어 ‘만트(манты)’, 아르메니아어 ‘만티(մանթի)’, 아제르바이잔어·튀르키예어 ‘만트(manti)’, 우즈베크어 ‘만트(manti)’, 위구르어 ‘만타(مانتا)’, 카자흐어 ‘만티(манті)’, 타지크어 ‘만투(манту)’, 파슈토어 ‘만투(مانتو)’ 등 비단길을 따라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의 여러 비슷한 음식과 같은 어원을 공유한다. 중국어 ‘만터우(饅頭)’도 어원이 같으며, 과거에는 우리 만두와 마찬가지로 소를 넣어 빚은 음식을 뜻했으나, 지금은 소를 채우지 않고 찌거나 구운 찐빵 비슷한 음식을 뜻한다.

당시 페르시아는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의 한나라와 교역하였으며, 이때 만두가 중국으로 전래되었다. 그 과정에서 물이 부족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화덕에 굽거나 튀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중국인들은 이 음식을 ‘이민족의 밀가루 음식’이란 뜻으로 ‘후빙(胡餅)’이라고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원의 음식으로 정착, 현재의 ‘지엔빙(煎餅)’, ‘웨빙(月餅)’이 되었다. 또한 물이 풍부한 중국 문화권의 삶고 찌는 조리법과 결합, 찌는 방식은 ‘만터우(饅頭)’, 삶는 방식은 ‘탕빙(湯餅)’이 되었다. 만두가 남만인의 머리를 뜻하는 ‘만두(蠻頭)’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지만, 삼국시대 이전인 후한 시대에 최식이 지은 《사민월령(四民月令)》에 이미 만두라 할 만한 음식이 존재했던 것으로 봐서 낭설에 가깝다.

한반도에는 14세기경 원나라를 통해 소개되었다고 여겨지

거나 그 이전에 중동에서 비단길을 통해 들어왔다고 보기도 한다. 한국에서 언제부터 만두를 먹기 시작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려 시대 후반부터로 보고 있다. 고려 충혜왕 때에 ‘내주(內廚)에 들어가서 만두를 훔쳐먹는 자를 처벌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훈몽자회(訓蒙字會)』,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등에서는 만두를 ‘상화(霜花)’라고 하여 “상화는 모양과 성질이 한국인의 기호에 맞는 관계로 한국 사신이 오면 그들을 접대하는 데 썼다”고 했다. 고려 가요 『쌍화점(雙花店)』에 나오는 상화도 이것을 가리키는데 가루에 술을 넣어 부풀린 반죽을 찐 것을 말한다. 가장 오래된 한글판 음식서적 『음식디미방』(1670년경)에서는 ‘메밀가루로 풀을 쭈어서 반죽하고 삶은 무와 다진 꿩고기를 볶아서 소를 넣고 빚어 삶아 내었다’고 한다. 1800년대의 『주찬(酒飮)』에는 소 내장인 양과 처첩, 그리고 송어살을 얇게 저민 소를 넣은 만두가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만두란 말이 처음 기록된 것은 『영접도감의궤(迎接都監儀軌)』(1643년)에 나오는데, 명나라에서 온 사신을 대접하기 위하여 특별히 만들었다고 하며 이후 궁중의 잔치에도 종종 차렸다고 한다.

한국의 만두는 전통적으로 북부 지방에서 발전되어 왔다. 북부 지방에서는 추운 날씨에 메밀과 밀의 재배가 보편적이었던 반면, 온난한 남부 지방에서는 쌀 위주의 농사가 이루어져 쌀을 이용한 음식 위주로 발전했다. 개성 이북 지역에서는 명절 음식으로 설날에 만두를 빚는 풍습이 있으며 만둣국을 만들어 먹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개성 이남 지역에서는 만두 만둣국 대신 가래떡으로 떡국을 만들어 먹었다. 만두를 빚고 만둣국을 만드는 풍습이 점점 남쪽으로 퍼지면서 중부 지방에서도 설날에 만두를 빚는 경우가 늘어나 경기 충청 일대에서는 떡과 만두를 같이 넣는 떡만둣국을 주로 먹고 있다. 양주는 만두소에 쓰이는 부추가 많이 재배되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만두의 맛과 향이 한결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2. 바지락칼국수

조선 시대에서 가장 오래된 요리책인 『규곤시의방(閔壘議方)』(1607년)에 최초로 칼국수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면 요리가 등장한다. ‘절면(切麵)’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이 요리는 지금의 칼국수와 다르게 메밀을 면 재료로 썼다. 현재 칼국수의 직계 요리라 할 수 있는 면 요리가 1920~1940년대의 요리책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나 1930년대의 요리책 『간편조선요리제법(簡便朝鮮料理製法)』에 등장하나, 면을 만드는 방법만 동일하고 조리하는 방법은 지금과 상이하다. 오늘날의 칼국수는 우려낸 국물에 면을 끓여내나 두 요리책에선 면을 따로 끓이고 익힌 면을 찬물로 씻겨 내기까지 한다. 현대와 같은 칼국수 요리법은 해방 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경남 지역에서는 아직도 면을 따로 끓이기도 하며 면을 같이 끓이는 방식은 ‘제물국수’라 구별하여 부른다. 즉 면을 따로 끓여서 건지는 방식이 칼국수의 원형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수 반죽을 펼쳐내 부엌칼로 썰어 뽑기 때문에 칼국수라는 이름을 얻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칼국수라는 명칭을 접했을 때 같이 들어있는 국수인 줄 알고 기겁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돌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에서는 주로 식재료를 합성하여 음식 명칭을 짓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슷한 예로 중국요리 중에도 ‘도삭면(刀削麵)’, 즉 칼로 깎아 만드는 국수가 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칼국수와 같은 제면 방식을 ‘서우공몐(手工面)’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멸치육수 칼국수(부산·경남 지역), 바지락과 해물을 사용해 시원한 맛을 내는 칼국수(전라도), 멸치육수에 주로 닭고기를 넣어 깊은 맛을 내는 칼국수(경기도) 등이 있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뽕대미를 말린 디포리와 사골 육수를 배합하는 것이 정석이다. 서울에서는 쇠고기 고명과 육수를

사용하며, 좀 더 고급스럽게는 사골육수로 국물을 내기도 한다. 강원도 영서에서는 된장을 이용하고 영동에서는 고추장을 이용한 장칼국수, 전라도 지방에서는 팔칼국수가 유명하다.

이곳은 대표적인 해물 칼국수인 바지락칼국수를 내놓는다. 바지락칼국수의 기원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의 대부도에서 만들어졌으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 밀가루가 남아돌자 이를 활용해 서해 갯벌에 흔한 바지락을 듬뿍 넣어 만든 칼국수로서 면 역사가 아님에도 금방 대중화에 성공했다. 바지락만 제대로 해감하면 시원한 국물 맛의 칼국수가 완성된다. 사실 바지락 자체는 8월 중순 빼고 거의 1년 내내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번식과 양식이 쉬운 조개이다. 해감한 바지락에 마늘, 대파와 칼국수 생면에 양념할 소금 또는 국간장만 있어도 충분하다. 가게에 따라 새우, 오징어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곳의 바지락칼국수에도 잔 새우가 듬뿍 들어가 국물 맛이 한결 시원하면서도 개운하다. 바지락칼국수 맛 자체도 중요하지만 함께 나오는 김치의 맛에 따라 칼국수 맛의 평가가 갈리기도 하는데, 경기향토음식 소믈리에로 선정된 옥 대표가 직접 담가 내놓는 배추김치와 깍두기 맛까지 더해져 최근에 맛본 최고의 칼국수로 엄지척 하기에 손색이 없었다.

3. 들깨죽

죽(粥)은 곡식을 물에 푼게 풀어 오래 끓여 알갱이가 흩실 무르게 만든 음식으로, 서양의 포리지(porridge)와 비슷하다. 일부 국가의 문화에서 죽은 주로 아침 식사나 저녁 식사로 취급하는 반면, 다른 문화에서는 밥을 대체하는 요리로 취급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죽을 저우(粥, zhōu)라고 하고, 쌀죽은 시판(稀飯, xī fàn)이라고 부른다. 영어권에서는 라이스 콘지



(rice congee)라고 말하며 이는 드라비다어족의 낱말 kanji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죽은 일반적으로 함께 첨가되는 부재료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띤다. 잣죽, 전복죽, 호박죽, 흑임자죽, 닭죽, 팔죽, 야채죽, 콩죽 등이 대표적이고, 죽 전문 프랜차이즈 식당도 여럿 있으며 서양에서도 귀리죽, 메밀죽 등이 있다. 들깨죽은 통상 들깨에 물을 붓고 갈아 불린 쌀과 함께 넣고 끓인 다음 소금으로 간한 죽으로 제주에서 깻잎을 ‘유잎’이라고 하는 것처럼 들깨죽은 ‘유죽(糲粥)’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이날 맛본 들깨죽은 남은 바지락칼국수 국물에 밥과 들깨, 참기름을 넣어 국물을 자박자박 졸인 특별식으로 일종의 메인 요리 후식이다.

요약컨대 칼국수가 끓기까지의 만두는 식욕을 돋우기 위한 애피타이저(Appetizer)에 해당하고, 손수 끓여 먹는 칼국수가 메인 요리라면, 칼국수의 남은 국물로 살짝 볶아먹는 소량의 들깨죽은 입가심으로 마무리하는 디저트(Dessert)에 해당한다. 단품 메뉴 ‘바지락칼국수’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세트 메뉴화한 것이 ‘칼만죽’인데,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워 식당의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았다. 칼만죽의 메뉴 개발은 오롯이 옥 대표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으로, 칼국수의 조리 과정상 익힐 때까지 시간을 만두로 메우고, 남기는 국물로 죽을 만들어 속을 든든히 해 주려 한 고객 중심의 발상이 주효했던 것이다. 점심 메뉴는 이 외에도 보리비빔밥, 해물파전 등이 있고 하절기에는 이 일대에서 재배된 콩으로 내놓는 콩국수도 있다.

옥 대표의 말을 빌리면, 상당히 외진 이곳의 단골손님들 대부분은 근처 공단에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한다. 처음 식당 문을 열었을 때 식사 위주로 하려 했으나 저녁 손님이 차츰 늘어나면서 저녁 술안주 메뉴가 조금씩 늘어났다. 꼬장어볶음과 닭발볶음을 필두로 각종 찌개류가 추가되었고, 능이백숙이

나 닭도리탕, 감자탕, 수육 등 시간이 많이 걸리는 특별요리들은 하루 전 예약만 주면 웬만큼 다 소화해 낸다고 한다. 이미 맛본 칼만죽 맛만으로도 경기도 향토음식 소믈리에의 위용을 느낀 것처럼 어떤 요리도 척척 소화해 낼 그녀의 손맛이라면 무엇이든 맛있지 않으랴.

경기향토음식 소믈리에, 옥순애 대표

식당의 한구석에 옥 대표가 받은 여러 상장들이 즐비하다. 2011 비암마을 약선두부 경진대회 최우수상, 2015 양주골 토마토를 이용한 요리경진대회 장려상, 2010 경기도농업기술원 향토음식 소믈리에 수료증, 2011 여주 쌀·고구마요리 전국경연대회 동상, 2010 여주농특산물 세계화 요리대전 장려상, 이 중에서도 그녀는 ‘경기향토음식 소믈리에’임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식사 후 그녀와 잠시 인터뷰를 할 때의 첫인상은 ‘얼굴은 복상이요, 풍기는 느낌은 똑순이 같다’는 거였다. 60대 초반에 들어선 나이임에도 말 마디마다 자신감이 넘쳐난다. 모친의 손맛을 이어받아 대충 음식을 만들어 내놓아도 젊어서부터 칭찬이 자자했다며 타고난 손맛을 자랑한다. 요리할 때의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도 한다. 그런데 식당을 연 지 채 3년도 안 되고 5개월가량은 건강 문제로 쉬기도 해서 식당 경력이 매우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SNS에 ‘양주 향토음식 맛집’을 검색하면 상위권에 꼭 <상수골60번지칼국수전문점>이 소개되어 있다. 한 마디로 경기향토음식 소믈리에 옥순애 대표의 저력이 아닐 수 없다.

옥 대표는 인터뷰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다. “저와 남편 모두 양주 태생에다 둘 다 양주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뻗속 깊이 양주 사람이지요. 30여 년간 향토음식 공부에 매진하다가,





남편이 농협을 퇴직한 후에야 식당을 차리게 되었어요. 양주 특산물인 부추와 딸기인데, 몇 해 전에는 ‘부추국수’로 요리대회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 내에서는 음식 멘토로 활동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식당을 차린 만큼 양주의 맛을 개발하고 시연하는 노력을 더욱더 경주하겠습니다. 오시는 손님들 말씀따라나 ‘한 번도 오지 않은 손님은 있어도 한 번만 다녀가는 손님은 없을’ 그런 식당이 되어야지요(웃음)”



위치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20번길 60
전화 031-863-4032
영업 오전 11시~오후 9시 (일요일 정기휴무)
메뉴 칼만죽 10,000 / 바지락칼국수 8,000 / 보리비빔밥 8,000 / 해물파전 12,000 / 만두 6,000 / (하절기) 콩국수 9,000

글 신안섭

경기 군포 거주. K-Geofood Academy 소장. <코리안 지오푸드(2022)>, <몸에 좋은 행복식품 다이어리> 외 다수의 식품서적 발간

‘마지막 모습’이 서려 있는 임진강과 연천

상대영

들어가며

임진강은 한반도 중부에 위치한 강으로 남북한에 걸쳐 흐른다. 북한의 함경남도 문천군 두류산에서 시작하여 군사분계선을 넘어 내려온 뒤 철원·연천·파주를 지나면서 고미탄천(古味呑川)·평안천(平安川)·한탄강·한강과 합류하여 서해로 흘러 들어간다. 이러한 임진강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경계’의 역

할을 해 왔다. 삼국시대 이전에는 마한 세력과 한사군 세력의 경계선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삼국시대의 전반에는 백제와 고구려 간, 후반에는 신라와 고구려 간의 국경선 역할을 하였다. 또 임진왜란이나 한국전쟁 때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였고, 오늘날 역시 남북한의 군사분계선 일부가 강 한 복판으로 지나가며 여전히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다.

임진강





경순왕릉



탄흔이 뚜렷한 묘표



신도비각

신라왕조의 마지막 모습, 경순왕릉

신라는 시조 박혁거세를 시작으로 56명의 임금의 즉위하며 1,000년 가까이 왕조를 유지하는 동안 도읍을 경주 밖으로 옮긴 적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신라 왕릉은 경주 인근에 있는데, 유일하게 그렇지 못한 왕릉이 하나 있으니 바로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능이다. 경순왕릉은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천 리 떨어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에 있다.

935년 경순왕은 “힘이 없어 나라를 보전할 수 없게 되었으니 차마 죄 없는 백성들의 간과 뇌가 땅에 쏟아지게 하는 고통 [간뇌도지(肝腦塗地)]을 겪게 할 수는 없다”며 고려의 수도인 개성으로 가서 항복하였다. 고려 태조 왕건은 즉시 그를 낙랑왕(樂浪王)에 봉하고 자신의 딸과 혼인시켜 사위로 삼았다. 그 뒤 경순왕은 죽을 때까지 경주를 밟지 못하였다. 나라를 통째로 바친 것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스스로 경주에 발걸음을 안한 것인지, 고려 정부의 정치적 부담에 따른 강압으로 경주행을 저지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신라에 멸망당한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

그런데 경순왕릉이 왜 개성이나 경주에 있지 않고 연천에 있는 걸까? 고향 경주에 한 발짝이라도 가까운 개성 남쪽의 이곳에 무덤을 만들어준 고려정부의 배려일까? 아니리라! 고향 경주로 가던 운구(運柩) 행렬이 부득이 이곳에서 멈추었을 것이다. 후백제가 여전히 강성한 상황에서 신라인의 동요와 만일의 불기를 염려한 고려 왕조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왕릉의 규모는 높이가 약 3m에 지름이 7m 정도로 여느 신라 왕릉보다는 작지만 일반인의 무덤에 비하면 훨씬 크다. 왕릉은 조성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몇 차례의 전란을 겪는 동안

능의 위치가 실전(失傳)되었다가, 조선 영조 때인 1746년 지석(誌石)과 신도비(神道碑) 등이 발견되어 왕릉을 정비하고 제사를 지냈으며, 고려왕조의 다른 왕릉의 예에 따라 수총군(守塚軍)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아마도 지금 보는 봉분 하단의 돌레돌과 봉분의 3면을 둘러싸고 있는 곡장, 상석, 묘표, 장명등, 그리고 각 한 쌍인 석양과 망주석은 이때 보수 내지 새로 조성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왕릉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또다시 잊혔다가 1970년대 군사분계선을 순찰하던 군 간부에 의해 발견되어 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능 아래의 비각에는 경순왕의 신도비로 전해지는 비가 모셔져 있다.

고려왕조의 그림자, 송의전

연천군 미산면 아미산 자락에 위치한 송의전(崇義殿)은 고려 왕조의 4왕과 16공신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지내는 사당이다. 경순왕릉이 수백 년 동안 방치된 것과는 달리 송의전은 조선 개국 후 조정의 명으로 세워지고 유지·관리된 공식 시설이었다.

이곳은 본래 고려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던 양암사(仰巖寺)가 있던 곳이다. 1397년 조선 태조 이성계는 고려 태조의 사당을 지으라고 명하였고, 사당이 건립되자 1399년(정종 1)에 고려 태조를 비롯해 혜종, 성종, 현종, 문종, 원종, 충렬왕, 공민왕 등 8왕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그런데 1413년(태종 13) 예조에서 조선의 종묘에서도 5왕을 모시는데, 고려 8왕의 제사를 받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건의에 따라 태조·현종·공민왕을 제외한 5왕의 위패는 없었다. 이후 3년 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고 매년 봄·가을 두 차례 제사를 올리도록 하였으나,



송의전



태조 왕건의 어진과 위패

1425년(세종 7)에 재차 반대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태조·현종·문종·원종 등 4왕만을 봉향하도록 하였다.

1451년(문종 1)에 전 왕조를 예우하는 의미에서 ‘송의전’이라 이름 짓고, 고려조의 충신인 복지겸(卜智謙), 홍유(洪儒), 신승겸(申崇謙), 유금필(庾黔弼), 배현경(裒玄慶), 서희(徐熙), 강감찬(姜邯贊), 윤관(尹瓘), 김부식(金富軾), 김취려(金就礪), 조충(趙冲), 김방경(金方慶), 안우(安祐), 이방실(李芳實), 김득배(金得培), 정몽주(鄭夢周) 등 16명을 배향하도록 하였다. 또한 1452년(문종 2)에는 고려 현종의 후손인 왕순례(王循禮)에게 송의전 부사(副使)의 관직을 주어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후손들이 그 직책을 대대로 잇게 하였다. 이는 조선왕조가 고려 왕족의 불평불만을 없애고 고려 유민을 회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송의전은 1605년(선조 38), 1731년(영조 7), 1789년(정조 13), 1868년(고종 5), 1908년(순종 2)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개수와 중수가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한국전쟁 중에 불탄 것을 1972년에 사적으로 지정하고 다음 해에 재건하였다. 현재 건물로는 4왕의 위패를 모신 송의전(崇義殿), 16공신의 위패를 모신 배신청(陪臣廳), 필요 시 위패를 잠시 옮겨 모셔 두는 이안청(移安廳), 제수를 준비하는 전사청(典祀廳), 제사 때 사용할 향·축·폐 등을 보관하거나 제관들이 제례 준비를 하며 머무는 양암재(仰巖齋) 등과, 내신문(內神門), 외신문(外神門), 협문(夾門), 운조문(雲鳥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899년에 편찬된 『마전군읍지(麻田郡邑誌)』에 따르면 당시 송의전은 8칸 규모의 정전과 배신청, 이안청, 향배청, 전사청, 주방 등 현재 재건된 것보다 규모가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고려 16공신의 위패(일부)

한말 의병운동의 보루 임진강

19세기 말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화 과정에서 의병운동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1895년(고종 22)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 공포로 촉발된 을미의병,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일어난 을사의병,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해산으로 일어난 정미의병이 그것이다. 특히 정미의병은 해산된 군인이 의병에 가담함으로써 전투력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다. 하지만 일제가 의병 토벌에 혈안이 되어 대대적인 의병 체포와 학살을 저지르면서 이후 의병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1909년 일제의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의병 진압을 뜻하는 일제의 표현) 이후 의병들이 만주·연해주로 망명하기 전 마지막까지 활동을 벌이던 곳이 바로 임진강 유역이



허위

었다.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왕산(旺山) 허위(許蔚; 1855~1908)를 들 수 있다.

1895년에도 의병을 일으켰다가 고종의 명으로 의병부대를 해산했던 적이 있는 허위는 1905년 지례(知禮; 현 김천시)에서 생활하다가 을사늑약 체결 소식을 전해 듣고 경상·전라·충청·강원·경기

등지를 돌며 다시 의병을 일으킬 준비를 하였다. 이어 1907년 전국적으로 의병운동이 확산되자 허위는 연천·적성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후 연기우(延基羽)·김진묵(金濂默)·왕회중(王會鍾) 등의 의병부대와 연합해 연천·삭녕·마전·적성·파주·양주·포천·가평·철원 등지에서 일본군과 친일분자를 공격하는 등 세력을 떨쳤다.

1907년 11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이 서울을 직접 공격하여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자 양주로 모여들었다. 48개 의병부대에 1만여 명에 달한 의병들은 전국의병연합부대인 13도창의대진소(十三道倡義大陣所)를 편성하였는데, 이때 이인영(李寅榮)이 총대장이 되고 허위는 군사장을 맡았다. 1908년 1월 허위는 300여 명의 선봉대를 이끌고 망우리 일대까지 진격하였다. 동대문에서 불과 30리 떨어진 곳이었다. 그러나 후속 지원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후퇴하게 되었으며, 부친상으로 귀향길에 오른 총대장 이인영의 작전 중지 명령으로 결국 서울진공작전은 좌절되고 말았다.

이후 허위는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김수민·연기우·왕회중·이은찬·윤인순·정용대·강기동 등과 관동창의원수부(關東倡義元帥府)라는 연합부대를 결성하고 총대장이 되었다. 연합의병부대는 임진강·한탄강을 무대로 일본군 진지나 관공서를 공격하고 전신선을 절단하여 일본군의 연락체계를 마비시켰으며, 친일분자를 처단하는 등 항일투쟁을 벌여나갔다. 이어 허위는 1908년 4월에 고종의 복위, 한국의 외교권 회복, 통감부 철거 등 32개조의 강경한 요구조건을 통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08년 6월 11일 영평군(현 포천시)에서 일본 헌병에 체포되었다.

의병장 허위의 활동과 관련하여 일제 측은 “조선의 많은 폭도 중에서 가장 폭위를 떨쳤다.”고 기록하고 있다(일제 측 기록에서는 의병을 폭도라 지칭). 허위는 의병전쟁이 끝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왜적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어서 사마귀가 수레를 막아서는[당랑거철(螳螂拒輦)]” 심정으로 일제에 항거한 독립투사였다. 그는 개인의 명성이나 부귀는 거들떠보지 않았고, 오직 나라를 구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연천에서 활동 중이던 그에게 이완용이 내무대신 벼슬을 주겠다고 회유한 것을 단칼에 거절하고 죽을 때까지 국권회복을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하였다.

연합의병부대를 지휘한 총대장으로서 사형을 면할 수 없었던 그는 순국 직전 “아버이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나라의 주권도 회복하지 못했으니 충성도 못하고 효도도 못하였구나. 죽은들 어찌 눈을 감겠는가.”라는 유서를 남겼다. 서대문형무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교수대에 올랐으니 1908년 10월 21일의 일이었다. 1962년에 건국훈장 가운데 가장 높은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의병투쟁을 지켜보았을 임진강변의 느티나무(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연천항일의병비(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태풍전망대

나오며

올해로 남북 분단 78주년, 전쟁 발발 73주년이 되었다. 경기도 최북단의 연천군은 위도상 북한의 개성이나 해주보다 북쪽에 있으므로, 북한 땅의 일부가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중면 횡산리의 비끼산 정상에 자리 잡은 태풍전망대에 서면 감회가 남다르다. 이 전망대는 250km에 달하는 휴전선 중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1953년의 정전협정 당시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 구역을 비무장지대(DMZ)로 설정하기로 규정하였지만, 북한이 먼저 철책선을 남쪽으로 이동해 설치하자 이에 질세라 남한도 철책선을 북쪽으로 올려 설치하였다. 이렇다 보니 4km가 아닌 1.6km 사이를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

전망대에는 종교시설, 전적비, 평화통일 기원 시비(詩碑), 미군 전사자 충혼비, 유엔군 참전비, 소년전차병 기념비 등이 있고, 전시관에는 임진강에서 수습한 북한 주민 생활용품, 무장

간첩 침투장비 등이 진열되어 있다. 눈길을 북쪽으로 돌리면 한국전쟁 최고의 격전지로 꼽히는 베타고지·노리고지가 가까이 보인다. 현대까지도 대치와 경계, 분단의 아픔을 가진 연천의 안타까움이 지속되고 있는 듯하다.

얼마 전까지 연천군은 ‘한반도 중심’, ‘통일한국의 심장’ 등 통일된 한반도의 중심지임을 강조하였는데, 요즘은 ‘다함께 미래로 Yes 연천!’으로 슬로건을 바꾸었다. 이는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듯 화합과 평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전철 1호선 연천 구간 개통(예정)과 고속도로 추진 등으로 수도권 접근성을 확보하고, 건강과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 등 ‘살고 싶은 연천’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마지막 모습’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모습’의 연천을 기대할 때다.

글 상대영

중앙대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대학에서 '한국사'와 '문화재의 감상'을 강의하였고, 수원화성박물관 전문위원으로 고문서 번역과 해제를 담당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관광통역안내사 대상의 한국사 및 관광자원 답사 교육 사업을 총괄하였다.

현재는 IT기업에서 앱서비스를 위한 고문헌 속 관련 자료 추출 및 집필 작업을 하고 있다.

‘정려가 다섯 개~’ : 안산 오정각

정진각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영화 ‘관상’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이다. 조카 단종의 왕위를 노리던 수양대군의 말입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역사에서 영화나 드라마 주제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은 아마도 장희빈(張禧嬪)과 수양대군(首陽大君)일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조정과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만백성의 먹고사는 문제겠지만 ‘흥미’로 따지자면 정치적 이슈를 뛰어넘지 못하는 모양이다. 수양대군과 관련된 일말의 정치적 사건은 한양의 경복궁과 그 인근 서울에서 벌어졌지만 100리 떨어진 경기도 안산에서도 그 연관이 있다. 수양대군의 야망에 죽음으로 맞선 김문기(金文起)와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안산(화정동)과 연결되었을까.

지금의 화정동은 조선시대 안산군의 9개의 면 중 잉화면에 속하였고 화정리·광곡리 지역으로 1914년 시흥군 수암면 화정리가 되었다. 1989년 시흥시 화정동이 되었고 1991년 시흥시 연성동으로 개칭되었고 1995년 ‘고주물’과 ‘너빌’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안산시 화정동이 되어 행정동인 선부3동의 관할하에 있다가 2002년 단원구에 속하게 되었다.

화정동(花井洞)은 우물에서 물이 솟아 나올 때 하얀 물방울거품의 모양이 마치 하얀 꽃처럼 보여 ‘꽃우물’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 우물에서 시작한 물이 흘러내려 화정천을 이룬다. 마을 이름 ‘꽃우물’은 세월이 흐르며 소리만 전해지면서 남아 ‘고주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또 옆마을은 수리산 지맥인 마산에서 오자산으로 흐르는 산자락에 자리잡아 샘이 많았다. 아무리 가물어도 이 샘물들이 마르지 않아 농사를 짓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산골짜기 밑에 넓은 들이 있는 곳이라는 “너빌(廣谷) 마을이라 부른다. 마을 사람 들이 이곳에서 오래도록 이어 살았던 것도 이때 문일 것이다.

오늘날 화정동 너빌 지역은 주민 대다수가 김녕김씨이다. 간혹 타성이 들어와 살긴 했지만 대부분 3대를 넘기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다. 이곳에 살고 있는 김녕김씨 집안이 워낙 큰 세를 이루

었고, 마을 전체가 한 집안처럼 얽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집안이 이곳에 정착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너빌 마을 어귀에서 골목길을 돌고 돌아 마을 안으로 들어서면 오정각(五旌閣.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7호)의 지붕이 보인다. 1870년(고종 7)에 김문기-김현석-김충주-김경남-김약전 5대에 걸친 2층신·3호자 정려가 내려지면서 지은 정려각이다.

오정각 앞에는 <오정각중수기념비>(1983년)가 서 있는데 뒷면과 옆면에 김문기를 비롯 한 2층신 3호자의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정려각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과 출입문은 1983년 중수 때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태극무늬가 그려진 일각문을 지나면 오정각의 건물 정면 바깥쪽에 ‘五旌閣’ 현판이 걸려있고 안쪽에는 ‘五世忠孝’라고 쓴 현판이 있다. <중수기(重修記)>에서는 1870년에 정려각이 처음 건립될 당시에는 오세충효정각(五世忠孝旌閣)이라 했음을 밝히고 있다.

역적인가, 충신인가

계유정난(癸酉靖難), 수양대군이 당대의 거물 김종서(金宗瑞)·황보인(皇甫仁) 등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으로 왕위 찬탈의 서막이 되었다. 계유년(1453)에 어지러움(難)을 안정시켰다(靖)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지만 이는 일종의 패권 싸움에서 승리한 세력의 기록일 뿐이다. 이후 왕좌에 등극한 세조는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냈다가 끝내 살해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육신(死六臣)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운동을 벌였다.

1456년 6월 명나라 사신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로 환송연이 열리게 되었다. 이때 성승(成勝; 성삼문의 아버지)과 유응부(兪應孚)가 임금을 호위하는 별운검(別雲劍)의 임무를 맡게 되자 기회로 삼았는데 세조가 이날 별운검을 두지 않기로 하는



오정각

바람에 계획은 후일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이에 모의에 가담했던 김질(金磧)이 뒷일을 두려워한 나머지 거사 계획을 밀고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일을 주도했던 김문기·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이개(李塏)·유성원(柳誠源)·유응부 등은 체포되거나 스스로 목을 찢러 목숨을 끊었다. 김문기는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꾀꿇함을 지켰으며 끝내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車裂刑)에 처해졌다.

거사에 가담했던 이들에 대한 인식은 오랫동안 역적과 충신 사이를 오갔다. 이미 인종 대에 대신들은 ‘당대에는 난신(亂臣)이지만 후세에 충신’이 되었던 정몽주(鄭夢周)의 사례를 들며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주었어도 시비(是非)는 훗날 공론(公論)으로 정해진다고 피력하고 있다. 반면 14대 임금 선조(宣祖)의 입장은 달랐다. ‘단종이 물러났을 때 죽지 못하고 새 임금인 세조를 없애려 했으니 충신일 수 없다’고 하였다. 더구나 나중에 <육신전(六臣傳)>을 쓴 남효온(南孝溫)에 대해서도 ‘나라일을 기록한 것은 죄이며 영터리 말로 조상을 모욕하였으니 책을 모두 불사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점차 단종 복위운동은 반역이 아니라 절의(節義)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었고 사당을 세워 배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었다. 그리하여 1691년(숙종 17)에 이들의 관작이 복구되고 노량진의 사육신 사당에는 민절사(閔節祠)라는 편액이 내려졌다.

김문기는 1731년(영조 7)에 후손 김정구의 청으로 신원되고 1778년(정조 2)에 충의(忠毅)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또한 1791년(정조 15) 장릉(莊陵; 단종릉)에 추향할 사람의 명단인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편찬할 때 민신(閔伸)·조극관(趙克寬)과 함께 삼중신(三重臣; 정2품 이상의 벼슬을 한 세 충신)에 포함되었다.



김문기의 영정과 정려

2층신 3호자 이야기

오정각에는 1456년(세조 2) 단종 복위의 모의에 가담하였다가 실패하여 참형을 당한 충의공 김문기와 그의 아들 현석(玄錫)의 충신정문(忠臣旌門), 손자 충주(忠柱), 증손자 경남(景南), 현손(玄孫) 약전(約前)의 효자정문(孝子旌門)이 각각 봉안되어 있다.

오정각 자리는 원래 1851년 김문기의 후손인 진사 김처영(金處榮)을 비롯한 안산의 유림(儒林)이 세덕사(世德祠)를 세워 그의 충절과 효행을 기렸던 곳이다. 그 후 이 집안의 충효가 김충주의 아들 김경남과 손자 김약전 이후까지 이어졌음을 알고 오정각을 세워 임금이 사액(賜額)하고 대를 이은 이 집안의 충효를 기념하였다.

김문기는 본관이 김녕(金寧)이고 자는 여공(汝恭)이며, 호는 백촌(百村)이다. 처음 이름이 김효기(金孝起)였는데 장인의 이름인 효정(孝貞)을 피해 문기로 바꾸었다. 1426년(세종 8) 28세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부친상을 당하여 3년상을 치르는 동안 벼슬에 오르지 않았다. 이후 예문관 검열, 사간원 좌헌납을 거쳐 함길도 도진무(都鎭撫)에 임명되었다가 2년 만에 내직으로 들어왔다. 다시 병조참의·부승지·함길도도관찰사·형조참판·함길도 도절제사 등 내외직을 두루 거쳤다. 1455년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공조판서 겸 삼군 도진무로 있으면서 성삼문 등과 함께 단종복위운동을 추진하다가 발각되어 목숨을 잃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그는 “성품이 악(惡)을 미워하기 때문에 의정부에 모여 의논할 적에 물리칠 만한 사람은 그의 입에서 많이 나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문기의 아들 김현석은 거창현감과 영월군수를 지내며 천성이 어질고 정직하여 군민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영월군수로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단종복위운동에 참여하였다



균원(菌園)이 새겨진 바위



성지곡(姓支谷)이 새겨진 바위

가 순절하였다.

(김충주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서술)

한편 김문기의 증손이자 김충주의 아들인 김경남은 버섯을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평생 산을 다니며 버섯을 캐서 봉양하여 '버섯효자'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집 뒷편에 있는 언덕 비탈에서 매일 버섯을 채취하여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이후 버섯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들이 그곳을 '버섯들'이라고 불렀다고 하며 마하산에는 그의 효행과 관련하여 '균원(菌園)'이라는 글이 바위에 새겨져 있다.

김문기의 현손 김약전은 아버지가 병이 나자 종기를 빨아내며 낫기를 기도하였다. 병이 위독해져서는 변의 맛을 보아 병세를 살피는 등 정성을 다하였다. 70세에 임진왜란을 맞았는데, 100세가 넘은 부모를 지극히 모시는 모습을 보고 왜군들도 감동하여 해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마을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방을 써붙이고 돌아갔다고 한다. 이렇게 효로써 가문(姓)을 지탱했다(支)고 하여 마을 이름은 성지곡(姓支谷)로 이름하게 되었고 김약전은 자신의 호를 성지당(姓支堂)으로 삼았다.

충절의 눈물에 소나무가 말라죽다

1456년(세조 2)에 단종복위운동에 가담하였다가 참화를 당한 이들의 재산은 적몰되고 가족은 노비로 전락하여 팔려가게 되었다. 당시 영동·옥천·안동 등지에 있던 김문기의 토지는 영의정·이조판서·예조판서 등에게 넘어갔고 그의 딸과 부인도 대사헌·도절제사에게 소속되었다. 이때 김문기의 손자 김충주는 형 김충립과 함께 노비가 되어 경상도로 끌려가던 중 형에게 울면서 말하기를 “형제가 모두 노비가 되었으나 앞으로의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후손에게 어찌 의롭지 않음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도망하여 부조(父祖)의 뒤를 잇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이들은 이름을 각각 철주(哲柱)·원희(元希)로 고치고 잠적하기로 하였다. 김충주는 형과 헤어져 태백산 아래 신두곡(新杜谷; 三水店)에 이르렀다. 그러나 곧 그의 행적을 사람들이 의심하므로 다시 지금의 안산 화정동으로 숨어들었다고 한다. 이곳은 산골짜기 밑에 넓은 들에 자리한 마을이라 하여 '너빌'



고송정



김충주의 집터에 새겨진 '탄옹고지(炭翁古址)'



김충주 부부 묘역



고송정 뒷산 바위에 새겨진 '망월암(望越巖)'

이라 하였는데 광곡[廣谷]이라 불리기도 한다. 김충주는 이곳에 풀을 엮어 집을 짓고 솥을 구워 팔면서 은둔하였는데 스스로 호를 탄옹(炭翁; 솥을 굽는 노인)이라 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숨어 살며 평생 고기와 술을 먹지 않고 벼에 평립을 쓰고 다녔다고 한다.

김충주는 평소 뒷산 바위에 올라 장릉(단종묘)이 있는 영월을 바라보며 옛 임금을 그리워하며 통곡하였다. 또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니 옆에 있던 소나무가 눈물에 젖어 그만 말라죽었다고 한다. 이후 1827년(순조 27) 그의 후손인 진사 김처일이 그 말라 죽은 소나무가 서 있던 곳에 정자를 짓고 고송정(枯松亭)이라 이름하였으며 영월을 바라보던 바위는 망월암(望越巖)이라고 하였다.

고송정은 오정각에서 남동쪽으로 약 300미터 떨어져 있다. 마하산 정상을 바라보며 작은 오솔길을 따라 계곡을 따라가면 가파른 산으로 올라가는 시작 지점이다. 정면 2칸, 측면 2칸의 단아한 팔작지붕건물로 1987년에 경기도 기념물 제 101호로 지정되었다. 정자 안에 걸린 <고송정중수기(枯松亭重修記)>에 따르면 김처일이 지은 원래의 건물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퇴락해지자 1936년에 중수하였다. 그 후 오랫동안 있었던 고송정은 세월이 흘러 많이 훼손되자 1992년에 전면 보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송정시(枯松亭詩)>라는 문집이 남아있어 그 내용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과 건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정자 왼편에 탄옹고지(炭翁古址; 탄옹의 옛 터)라고 암각한 바위가 있는데 마을 어른들은 그 자리가 바로 탄옹공이 집을 지어 살던 곳이라고 한다.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뚜렷하게 새겨놓은 네 글자를 확인할 수 있다.

‘탄옹고지’가 새겨진 바위 옆으로 산을 오르다 보면 김충주와 부인 나씨(羅氏)의 쌍분이 보이고 묘역 뒤편으로 100미터 정도 오르면 ‘망월암’을 볼 수 있다.

조선왕조 500년을 지배한 이념은 말할 것도 없이 유교(儒敎)였다. 또한 유교에서 중요시한 덕목이 충(忠)과 효(孝)였고 이들은 서로 어울려 인식되었다. 즉 ‘충효는 두 가지 도리가 아니다’,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나온다’, ‘효로써 임금을 섬기는 것이 곧 충이다’ 등 충과 효가 본질적으로 같다고 여겼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다. 시대가 바뀌면 이념과 사상도 변하기 마련이다. 오늘날 유교이념은 많이 퇴색되었고 자본주의와 개인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효의 개념을 단지 과거의 전유물로만 치부할 것은 아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마음’이야말로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덕목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글 정진각

한양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 경기도사편찬위원회(도사 편찬), 안산문화원(시사 편찬) 등에서 활동하였다. 현재 안산지역사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으며, 특히 선감학원과 안산지역 마을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RESEARCH & STUDY

전국선사박물관의 오늘이 있기까지

조선시대 전기 왕실 원찰 성남 갈현동 유적

‘임원경제지 학교’를 통한 파주학의 대중화와 임원경제학의 태동

경기도 안양지역의 근대문화유산

전곡선사박물관의 오늘이 있기까지

- 고고학적 성과와 문화유산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김소영(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선정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한탄강에 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국내에선 유일하게 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지질공원에 선정되기까지 해당 구역의 지자체인 경기도 연천군과 포천시 그리고 강원도 철원군의 많은 사람들이 애썼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중요성뿐 아니라 “생태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는 지역”을 선정대상으로 삼는다. 한탄강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고고학적 요소에 특히 구석기시대 유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선 이 일대에 구석기 유적이 분포하게 된 지질학적 배경을

보면 약 54만 년 전에서 12만 년 전 사이에 북한 평강 오리산과 680m 고지에서 분출한 용암이 철원평야를 지나 옛 한탄강과 그 주변 평야지대를 덮었고 임진강과 합류지점을 지나 임진강의 하류인 파주시 일대까지 흘러내렸다. 이때의 현무암 용암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 파주시까지 이어져 용암대지를 형성했다. 이후 한탄강의 물길이 새로 나고 침식을 거치면서 지금의 현무암 협곡의 절경을 가진 한탄강 모습이 되었다.

한탄강은 이러한 형성과정 덕분인지 크게 굽이쳐 흐르는 지점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연천 지역의 전곡리 일대이다.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은 강을 뒤로하고 앞에 산이 휘돌아 나가는 지



전곡리유적과 전곡선사박물관을 끼고 흐르는 한탄강

역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식수나 동식물 자원을 구하는 데 이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탄강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돌이다. 돌은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도구를 만들 때 가장 즐겨 쓴 재료이다. 우리나라의 이른 시기 구석기유적에서는 규암자갈돌을 깨어 만든 석기가 많이 나오는데 질 좋은 규암자갈돌 구석기 유적이 많은 이유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유적은 단연 전국리유적이다.

연천 전국리유적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구석기 유적이다. 유적을 찾은 영화 같은 스토리에, 주먹도끼라는 상징성, 거기에 대규모 선사축제 그리고 박물관까지. 유적이 보존된 이후 지금까지 지역축제가 이어지고 박물관까지 지어졌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유적 활용사례로 손꼽힌다. 이 전국리유적은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구역이 약 77만 8천 평방미터에 달한다. 그런데 보존된 지역만 이 정도이지 사실 전국리라는 동네는 곳곳이 구석기시대 유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전국리유적은 크게 고고학적 성과와 문화유산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두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유적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알아보자.

전국리유적의 발견과 발굴조사

전국리유적은 1978년 미군 병사 그렉 보웬이 발견한 주먹도끼로 갑자기 세상에 등장했다. 한탄강가에서 유적을 찾은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데 한국에서 복무하기 전 그렉 보웬은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고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다. 당시 유원지였던 한탄강 강변 일대를 당시 여자친구와 자주 걸었던 그는 구석기시대 펜석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아무도 찾지 못했던 석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렉 보웬은 유적을 발견할 당시 함께 있던 여자친구와 결혼해(상미 보웬)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전국리유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깊었고 그렉 보웬이 죽고 나서 상미 보웬을 통해 전국리와 관련된 자료나 고인의 물건 등을 기증하기도 했다.

1978년 봄에 그가 발견한 것은 단지 주먹도끼만이 아니었다. 주먹도끼, 가로날도끼, 찌개, 굽개 등의 석기 여러 점을 발견하고 이를 실측에 준하는 스케치로 남겼다. 흔히 아슐리안 주먹도끼라고 하면 주먹도끼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대체로 가로날도끼라 불리는 cleaver를 공반하며 지역마다 무척 복잡한 문화양상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전국리유적은 주먹도끼 뿐 아니라 가로날도끼도 함께 나오면서 유적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다.



주먹도끼를 발견할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그렉 보웬. 1978년

그렉 보웬의 그림 속 석기들은 프랑스의 보르도 교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대학교에 보고되었다. 국내의 학자들은 그렉 보웬과 함께 현장 실사를 거쳐 그해 겨울 첫 지표조사를 진행했고 서울대학교 김원용 교수와 프랑스에서 공부했던 정영화 교수는 진단학보에 <전국 아슐리안 양면핵석기 문화예보>라는 글로 정리하여 학계에 보고하였다. 당연히 학계는 술렁였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은 구석기 유적 연구는 다른 시대에 비해 활발하지 않았다. 1964년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에서 선도적이고 과학적인 고고학적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지만 학계 전반으로는 여전히 구석기 연구는 시작하는 단계였다.

게다가 당시 저명한 고고학자였던 H.L. Movius 교수의 소위 ‘모비우스 라인’은 당시 동아시아 구석기 유적에 대한 이해도 낮고 관련 보고도 드물던 현실에서 정설로 여겨졌다. 이에 따르면 인도를 중심으로 그 서쪽에는 아슐리안 문화권이, 동쪽에는 찌개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주먹도끼 특히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프랑스 생파술(Saint Acheule) 유적에서 처음 보고된 주먹도끼의 한 형식으로 양면을 다듬고 아래는 둥글고 위는 다소 뾰족한 형태로 만든 석기로 인류 진화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머릿 속으로 결과물을 계획하여 석기를 제작했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사실 이 이론의 이면에는 동양과 서양, 열등과 우월이라는 이분법적이고 차별적인 시각이 담겨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계에 처음으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동아시아 그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에서 발견된 것은 일대 사건이라 할 만했다.

당연히 전국리유적은 발굴조사를 하기도 전에 석기 몇 점 만으로도 유명하고 중요한 유적이 되었다. 1978년 겨울 지표조사를 바탕으로 전국리유적에 대한 첫 발굴조사를 1979년 3월 시작하였고, 당시 발굴조사는 여러 상황과 조건을 감안하여 연합발굴로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 김원용 교수를



전곡리유적에 대한 첫 지표조사, 1978년



전곡리유적 1차 발굴 모습 전경, 1979년



전곡리 주먹도끼



전곡리유적 일대 발굴조사 현황 지도

연합발굴단 단장으로 하여 영남대학교 정영화 교수팀, 경희대학교 황용훈 교수팀, 건국대 최무장 교수팀 그리고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가 참여하였다. 현재 전국리유적 2지구에서 처음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이곳은 그렉 보웬이 처음 유물을 수습한 곳이기도 하다.

그 이후 2023년 현재까지 전국리 일대에서는 총 22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가장 최근에 조사된 22차 발굴조사(겨레문화재연구원) 지역은 유적지의 서쪽 한탄강변의 용암대지에 자리하며 유적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최근 사례이기도 하다. 그동안 많은 조사에서 구석기 유적 내지 구석기 시대의 뎀석기가 발견되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사적으로 지정된 지역 이외에서 조사되었다. 물론 발굴 이후 조사지역에는 도로가 생기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나 주유소, 마트 같은 상업시설이 들어서서 지금은 조사지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초기 전국리유적이 보존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국리유적을 둘러싼 학계의 논쟁

그동안 전국리유적을 둘러싼 가장 치열한 고고학적 논쟁은 전국리의 상징인 주먹도끼가 과연 언제 만들어졌는가, 이 유적에서 사람은 과연 언제부터 살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전국리유적 역시 이 지역 다른 용암대지 유적처럼 현무암반 위 퇴적된 고토양층에서 확인된다. 문제는 이 고토양층의 생성연대가 몇십 만 년에 이를 만큼 두껍게 쌓여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유적을 보다 오래된 것으로 보는 현무암반 위의 퇴적층이 전국리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과 그 이후에 쌓인 적색 계통의 점토층이 주요 문화층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과연 둘 중 어디에서 전국리의 주먹도끼가 만들어졌을까?

고고 유적의 형성연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적의 유구, 퇴적상태, 유물 외에도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된 형성연대값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 영역이 조화를 이루고 유사한 경향을 보여야 유적의 적절한 형성 시기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구석기 유적의 연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그 생성연대를 추정한다고 보면 된다.

전국리유적과 관련해서는 우선 현무암반 위 퇴적층에서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었고, 이것이 전국리유적의 시작 연대라는 의견은 다음을 근거로 제시한다. 먼저 실제 주먹도끼가 실제 현무암반 바로 위의 지층에서 출토되었다는 보고이다. 1981년 서울대학교 발굴구역인 제2지구에서의 2차 조사 E1N9 피트

발굴과 3차 조사 E1S1-1에서 주먹도끼가 퇴적층 내에서 현무암 덩어리와 함께 발굴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층은 적색점토층 하부의 사질의 황색점토층이자 현무암반의 바로 위 퇴적층이다. 따라서 현무암반 연대를 측정하면 바로 위에서 현무암과 함께 나오는 주먹도끼 등 석기의 제작연대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조금 더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리 일대에 있는 용암대지 즉 현무암의 형성연대를 측정했다. 한양대학교 배기동 교수와 일본 장기(長崎)대학 Nagaoka 교수의 연합조사에 따르면 연천 일대 현무암은 크게 2매가 확인되는데 하부는 전국 현무암, 상부는 차탄현무암으로 각각 전국현무암은 51~25만 년 전, 차탄현무암은 18~10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국리유적 주변은 전국현무암만 나타나기 때문에 전국리유적 일대 퇴적층의 지질학적 상한은 50만 년 전으로 설정하였다. 나아가 2000~2001년의 시굴 중 가장 대표 피트인 E55S20-IV의 하상 기원 사질층 연대 측정이 약 20만 년 전으로 나오며 따라 사질층 하부의 퇴적층 생성연대를 30만 년 전으로 본 것이다.

이와 반대되는 의견은 전국리유적 농협부지 및 주유소, 도로부지 등의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다. 주먹도끼는 실제 그보다 상층에서 출토된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와 국방문화재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주먹도끼를 포함한 주요 문화층은 적색 내지 적갈색 점토층에서 출토된다. 이 층의 추정연대는 주로 OSL 연대측정의 결과로 최대 7~6만 년 전의 연대 값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현무암 용암대지의 형성부터 전국리유적 소멸까지 관련된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절대연대 측정값을 분석해보니 구하상인 백의리층은 50만 년 전 이전, 이후 현무암 용암대지는 50~12만 년 전 사이, 하성퇴적층은 12~6만 년 전, 이후 구석기시대 퇴적층은 6~2.5만 년 전 사이에 퇴적되었다. 이 결과를 보면 구석기퇴적층은 중기구석기시대 적갈색층에서 주로 형성된 것으로 보였다.

일련의 논의에 일종의 마침표를 찍어가는 것은 최근의 조사 결과이다. 겨레문화유산연구원이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전국리 85-12일대에서 진행한 제22차 발굴조사에서는 현무암반 위 퇴적층에서 주먹도끼가 다량으로 출토되기 시작한다. 1981년의 전국리유적 주먹도끼 출토 기록에 따르면 황색의 현무암 덩어리 포함층에서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는데 22차 조사에서도 4문화층인 황색사질점토층에서 주먹도끼, 주먹찌르개, 가로날도끼, 굽개, 여러면석기가 안정적인 층위에서 나온 것이다. 자연과학 분석에서도 이전에 진행된 현무암 연대측정이나 퇴적층 형성 시기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최신의 연구성과는 앞으로도 계속 검증을 거쳐



전곡구석기전시관 개관식 모습



제1회 구석기문화제에서 배기동 교수가 축문 읽는 모습

야겠지만 일단 전곡리유적이 최대 30~20만 년 전부터 형성된 유적일 가능성은 더 높아진 셈이다.

전곡리유적의 또 다른 시작, 전곡리 구석기 문화제와 전곡선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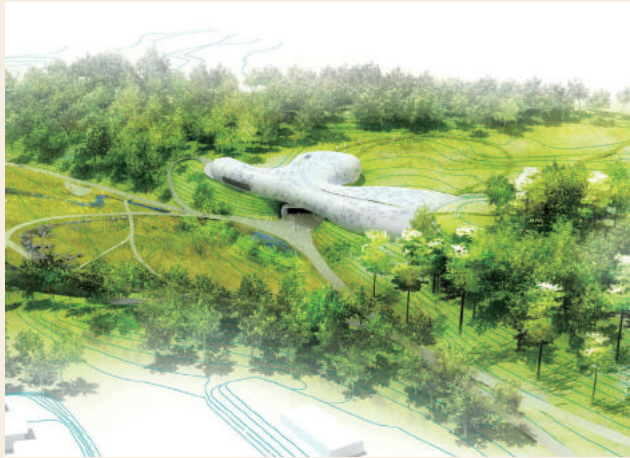
다음으로 전곡리유적은 유적의 활용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전곡리유적 초기 조사부터 참여했던 서울대학교의 배기동 선생은 이후 미국에서 구석기시대를 공부하고 귀국하여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당시 중단되었던 전곡리유적 조사도 1990년대부터 재개되었는데 유적의 중요성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에 비해 유적을 설명하고 주먹도끼를 보여줄 공간이 없었다. 이에 배기동 교수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하사했던 컨테이너를 고치고 배 교수와 지인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1993년 전곡구석기전시관을 열었다. 이때 전시관의 현판 글씨는 당시 투병 중이던 김원용 선생이 적었다.

이어 배기동 교수는 전시관을 연 것을 기념하기 위해 작은 축제를 기획하게 된다. 전곡 구석기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행위예술가였던 무세중 선생을 모시고 선사인과 현대인의 조우를 마당극 같은 공연으로 풀어냈고 아이들을 모아 선사그림 그리기 대회, 석기 제작과 석기로 돼지를 해체하는 시연까지 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획기적인 선사유적 활용 축제인 전곡리축제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후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2020년을 제외하면 올해까지 30회가 열렸고

국내외 대표적인 선사축제로 성장했다. 대중고고학 및 문화유산 활용 사례로서 아직도 우수 사례로 거론될 만큼 전곡리축제의 상징성은 크다.

여기서 선보인 석기 제작, 고기 해체, 가상 발굴, 선사그림 그리기 대회, 토기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이후 유사한 축제나 선사 주제의 박물관의 단골 프로그램이 되었다. 그리고 축제가 내실화하면서 기획되었던 연계 전시나 강연, 답사 등의 프로그램도 당시로는 획기적이고 선도적인 사례였다. 또한 세계선사축제를 표방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외 유사 유적이거나 기관과의 교류, 체험부스를 통한 실험고고학적 시도, 학술대회를 통한 연구는 전곡리축제에서 시작된 세계화된 축제의 표본이 되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전곡선사박물관의 건립과 개관이다. 전곡리유적의 고고학적 중요성, 전곡리축제를 통해 쌓아온 문화유산 활용 노하우와 대중의 관심은 결국 유적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박물관 건립으로 이어진다. 2004년 문화재청에서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2005년 경기도 도립박물관으로 건립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다. 관련 타당성 조사와 구상용역을 거쳐 건립추진위원회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6년 박물관 부지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사전협의를 문화재청과 했고 박물관 국제 설계공모전을 열어 프랑스 X-Tu사(社)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2007년 건립과 관련된 설계 및 건설 등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고 2008년 기본설계 승인과 건립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완료를 거쳐 2009년 박물관 건축 기공식을 열었다.



전곡선사박물관 조감도와 현재 모습

전곡선사박물관에 담긴 구석기시대에 대한 시선

전곡선사박물관은 이후 2년여 간의 공사를 거쳐 2011년 4월 25일 개관하였다. 박물관은 전곡리 구석기 유적의 남쪽에 자리하며 옛 사랑동 마을 자리에 세워졌다. 박물관 야외 조경과 건축물은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기본 콘셉트가 정해졌고 아직까지도 그 철학이 유지되고 있다. 박물관 앞 억새뜰과 고사리, 사이를 흐르는 물 그리고 전곡리유적과 맞닿아 있는 숲은 구석기시대의 자연과 닮아있다.

박물관은 한탄강 다리를 건너면서부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두 언덕 사이에 놓인 다리과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 이것은 건축가의 의도로 유적지의 자연지리적 환경 속에서 인위적이지만 자연스러운 길의 역할을 박물관이 하길 바랐다. 박물관 건물은 시간여행 우주선을 표방한다. 구석기시대 사람들 처럼 규격화되지 않은 환경과 동시에 시대를 초월한 추상적인 공간을 관람객이 박물관에 들어서면서 느끼도록 한 것이다. 언덕 사이에 놓인 다리로서 박물관은 동시에 전곡리유적으로 통하는 문의 역할을 하는데 두 언덕 사이에 놓인 박물관 건물(다리) 아래의 계단(문)을 오르면 유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의 우리는 구석기시대의 유물을 낡은 구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이 유물들은 삶을 지탱해주는 최첨단의 도구였다. 지금의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너무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사용하다 5년만 지나도 구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박물관도 구석기시대의 그것처럼 당대 최고의 기술과 노력으로 지어졌다. 박물관의 외피는 스테인리스판 하나

하나를 각기 다른 각도의 굴곡으로 이어붙인 것이다. 판에는 구멍이 나 있어 단세포 같기도 하고 용의 껍질 같은 느낌도 준다. 구석기라고 하면 가장 오래된 시대의 것을 본다고 생각하고 방문하는 것과 달리 초현대적인 박물관을 보면서 관람객은 낯선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박물관 내부는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큰 방처럼 느껴지도록 구성했다. 마치 동굴에 들어온 것처럼 벽과 천장과 바닥 이음새를 둥글게 마감하고 하나로 뚫린 공간은 사방이 막힘없이 설계되었다. 전곡리 주먹도끼와 가로날도끼 5형제 전시코너를 지나 마주하는 상설전시실은 마치 후기구석기시대의 프랑스 라스코동굴의 ‘황소의 방’처럼 동굴에서 가장 큰 공간이자 모두가 모여드는 곳이다. 전시실의 중심에는 인류 진화의 중요한 순간을 고인류 복원모형으로 재현해놓았다. 인류가 걷기 시작할 무렵부터 도구를 만들고 아프리카를 벗어나 불을 다루고 힘을 합쳐 사냥을 하고 예술을 꽃피우기까지 수많은 장면이 여기에 담겨있다.



상설전시장 속 인류 진화의 위대한 여정 코너

이 글에서는 박물관을 열기까지의 과정을 고고학적 성과와 선도적인 유적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선 고고학자들의 선구적인 조사와 연구, 축제를 통해 시작된 유적의 실질적인 활용방안,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수많은 관계자들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전국 선사박물관이 가능했다. 경기도의 대표 선사박물관으로서 전국 선사 박물관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지난 10년을 기점으로 외연을 확장했다면 13년째인 올해는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모색하고 박물관의 근간을 잊지 않으며 보다 멀리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 하나로 올해의 하반기 기획전 <고기>가 10월 21일 문을 열 예정이다. 선사콘텐츠를 연구하면서도 시대의 다양성을 포용하고자 노력하는 전국 선사박물관의 새로운 시도를 이 전시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전기 왕실 원찰 성남 갈현동 유적

이용범

I. 머리말

성남 갈현동 유적은 갈현동과 상대원동을 남북으로 잇는 대원터널 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¹ 해발 160m 내외의 구릉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뺏어내린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곡부에 해당한다. 이 유적은 최근까지 밭과 과수원으로 이용되다가 2019년 주민들의 발견신고로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현지조사와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축대, 기단, 담장 등 건물지와 관련된 유구 및 용두, 범자문 막새 등 다수의 유물을 확인하였다.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다수의 건물지로 이루어진 유적임을 확인하고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시굴조사(2020년) 및 정밀발굴조사(2021년~현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성남 갈현동 유적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내용과 성과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지표조사 채집유물(① 용두, ②범자문 막새)

II. 조사내용

2019년 주민들의 발견신고로 존재가 알려진 성남 갈현동 유적은 지표조사 결과 다수의 건물지로 이루어진 유적임을 확인하였고 2020년 주변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하여 남쪽 평탄 대지를 중심으로 건물지의 존재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이후 유적의 전체적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밀발굴조사(2021~2022년)를 실시하였다.

¹ 대원터널은 매장문화재 관련 법규가 정비되기 이전인 1993년 개설되어 갈현동 유적과 관련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볼 때 터널 개설로 인한 유적의 훼손 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갈현동 유적 전경

조사 결과 갈현동 유적은 건물지의 배치에 따라 크게 북쪽구역(1지점)과 남쪽구역(2지점)으로 구분되며 전체면적은 5,738㎡이다. 북쪽구역은 발견신고 및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곳으로 유적의 중심지에 해당하며, 동서 방향으로 4기의 축대를 쌓아 3단의 대지를 조성한 후 금당지, 중정, 회랑, 계단, 배수시설 등을 배치하였으며, 면적은 4,578㎡이다.

남쪽구역은 시굴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곳으로 장방형의 축대를 조성한 후 내부에 건물지를 배치하였는데 부속건물로 추정되며 면적은 1,160㎡이다.

2023년 조사에서는 갈현동 유적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심지인 북쪽구역(1구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금당지와 그 주변 건물지 등에 대한 내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쪽구역(1지점) 건물배치

갈현동 유적의 중심지인 북쪽구역은 동서 방향으로 4기의 축대를 쌓아 3단의 대지를 조성하였으며, 서쪽 경계는 축대로 동쪽 경계는 담장으로 구획하였다.



갈현동 유적 북쪽구역(1지점) 전경

북쪽구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단은 중앙계단과 출입문, 배수시설, 박석 보도, 온돌이 설치된 건물, 회랑이 있다. 특징적인 것은 서쪽 가장자리에서 기와가마가 확인되어 유적 내에서 기와를 자체생산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생산시점 등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



① 1단 출입시설, ② 2단 회랑

2단은 중심부의 중정을 바라보는 건물이 동서로 배치되어 있고 그 바깥쪽으로도 각각 건물이 확인된다. 또한 남쪽 축대를 따라서 회랑이 동서 방향으로 길게 설치되어 있다.

마지막 3단은 유적 북쪽의 가장 높은 공간에 해당하며, 중심 건물들이 배치된 공간으로 금당과 좌우, 동쪽 끝 확장구역까지 총 4동의 건물이 배치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3단의 북쪽 축대에 계단이 확인되어 북쪽으로도 추가적인 유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형 등을 고려할 때 암자 등의 소규모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쪽구역은 1단의 중앙계단과 보도, 2단의 출입계단, 중정을 중심축선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중심축선을 기준으로 좌우를 어느 정도 대칭되게 하여 건물을 배치하였다.

2. 금당지

금당지는 3단 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단의 중앙계단에서 중정으로 이어지는 유적의 중심축선과 연결된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중앙의 어칸이 뒷간에 비해 약간 긴 구조로 되어 있으며 내부 중심에는 기둥이 없는 넓은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전면부는 돌출시켜 돋보이게 하였으며 좌우로 출입을 위한 계단을 배치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금당지 북동쪽으로 내부에 낮은 단이 마련되어 있는 동서로 막힌 별도의 공간이 확인되는데, 구조적인 특징을 볼 때 개인적인 기도공간으로 추정된다.

한편 돌출된 전면부와 중정 사이의 좁은 공간에 정면 5칸 규모의 초석 1열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축대를 쌓아 증창되기 이전의 선대 건물로 판단된다.

3. 3단 동쪽 건물지

3단 대지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건물지로 금당지 동쪽에 접한 건물지와도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다. 금당지와 유사하게 전면부 축대를 돌출시켜 마련된 대지에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건물을 배치하였다. 건물의 좌우는 담장으로 막았으며 서쪽 담장 사이 출입구에서 옆 건물로 건너가기 위한 디딤석을 설치하였다. 일부 기단에는 치석된 장대석을 사용하였으며, 남쪽에는 전용 출입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 건물지는 동서 측면에 별도의 담장을 두르고 출입문과 디딤석을 설치한 점, 금당지처럼 전면부를 돌출시키고 전용계단을 설치한 점, 치석된 장대석으로 기단을 축조하는 등 다른 건물들과의 차별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건물의 위계가 금당과 유사하거나 이를 능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서쪽으로 연결되는 축대의 양상으로 보아 금당 및 동서의 건물이 조성된 후 공간을 추가로 확장하여 건물을 배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접 건물들과 약간의 시차를 두고 후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출토된 기와



① 금당지, ② 3단 동쪽 건물지

에서도 확인되는데 금당지에서는 어골문과 집선문 계열이 많고 청해파문이 소량인 데 반해, 이 건물지에서는 어골문과 집선문 계열은 매우 적고 청해파문이 2배 이상 많이 확인된다.

4. 중정

중정은 2단 대지의 중심부로 유적의 중심축선과 연결되고 금당지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 탑지로 추정되었으나 내부조사 결과 탑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평면은 장방형이며 동서남북 네 면을 석축으로 쌓았으며, 2단 대지의 지면보다 30~60cm 낮게 조성되어 있다. 또한 동쪽과 서쪽 측면에는 내부에서 외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각각 1매의 디딤돌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남동쪽 모서리 부분에는 집수구가 설치되어 있고 암거형 배수구가 길게 이어진다.

집수구는 구멍이 3개 뚫린 방형 판석을 놓고 그 위에 방형 또는 장방형의 석재를 구획하여 시설하였다. 집수구는 주변 지표와 높이를 고려하여 축조되었는데 현재도 중정 내부의 물이 배수된다. 한편 중정 내부에서 확인된 집수구와 동일한 형태의 집수구가 2단 서쪽 건물지 하단부에서 1기 더 확인되었다.



① 중정, ② 중정 배수구, ③ 2단 서쪽 집수구

5. 출토유물

갈현동 유적의 유물은 대부분 금당지를 중심으로 그 주변부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전기 왕실과 관련된 건물에 사용되던 취두, 용두, 잡상 등의 마루장식기와와 토수, 용문·봉황문 막새기와가 확인되었으며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는 연화문·범자문 막새기와 및 '근'자면 막새기와도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청기와, 마연기와, 벼루, 각종 자기류가 출토되었다.

출토사례가 극히 드문 취두의 경우 2조가 확인되었는데 복수가 각각 1단과 2단으로 구성된 것으로 서로 다른 건물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징적인 것은 2단으로 구성된 복수는 거멸뿔이 부착된 상태로 출토된 반면 복수가 1단인 취두는 뿔 구멍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1단 복수의 뒷면에 '大'자가 새겨져 있는데 상부에 결합되는 부분과 짝을 맞추기 위한 표식으로 판단된다.²



① 2단 취두, ② 1단 취두, ③ 1단 취두 뒷면 '大'

잡상은 장수상을 비롯하여 상인하수상, 동물상(새형, 물고기형)이 다양하게 출토되었으며, 크기에 따라서 2그룹으로 분류된다. 특히 청유잡상(상인하수상 하부)이 1점 확인되었는데, 갈현동 유적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용문과 봉황문 막새는 왕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자료 중의 하나인데 서울 영국사지 및 과천 관악사지 출토품과 거의 동일하여 갈현동 유적이 조선시대 전기(세종대)에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시 막새의 형태와 문양을 강력하게 통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³

2 양기홍, 2023, 「태안 양잠리 마루장식 기와의 특징」 『동아시아 중·근세 왕실마루장식기와 국제학술대회』, 69쪽.

3 이현주, 2023, 「조선 전기 한양도성 막새의 변화양상」 『한국기와학보』 제7호, 74쪽.



① 용두 및 토수, ② 잡상, ③ 청기와, ④ 막새기와

Ⅲ. 조사성과 및 향후계획

이상으로 갈현동 유적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추정 배치도

성남 갈현동 유적은 건물의 배치와 금당지를 중심으로 유적 전역에서 확인되는 연화문·범자문 막새기와 및 '근'자면 막새기와를 볼 때 사찰로 추정된다.

그리고 취두·용두·잡상 등 마루장식기와와 토수, 청유잡상 청기와, 마연기와, 용문·봉황문 막새기와 등 최상위의 위계를 보이는 유물과 경복궁 및 회암사지 등에서 확인되는 집수구와 동일한 형태의 집수구가 중정 내부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왕실과 밀접하게 관련된 곳임을 알 수 있다.

유적의 중심시기는 출토된 장식기와와 백자, 분청사기 등을 볼 때 15세기 전반부터 16세기에 이르는 조선시대 전기로 판단되는데 특징적인 것은 그 이후의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금당지 하부에 존재하는 선대 건물지와 3단 동쪽 건물지가 석축을 덧대어 확장한 대지에 조성된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세 세기에 걸쳐 창건과 중건 및 확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역불정책에 따라서 새로운 사찰의 건립이 매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고려시대 말에 이미 존재하던 소규모 사찰을 조선시대 전기 중창하여 왕실의 원찰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조선시대 전기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유적의 운영시기가 비교적 짧아 조선시대 전기 왕실 원찰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된 문헌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향후 조사결과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며 유적의 정확한 성격 및 정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임원경제지 학교’를 통한 파주학의 대중화와 임원경제학의 태동

신민경

파주시에서는 파주학의 일환으로 지역의 인물을 새롭게 발굴하고 선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가장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파주 장단 출신의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와 그의 저서 『임원경제지』의 번역성과와 실천방법을 공유하는 “임원경제지 학교”이다.

풍석 서유구(1764~1845)는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평가받는 학문과 예술이 발전했던 영·정조 때부터 조선이 점차 몰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순조·헌종에 이르기까지 농업 개혁을 통한 생산력 증대와 생활문화의 제도화 및 표준화를 통한 민생 개선에 힘쓴 학자이다. 조부 보만재 서명응(1716~1787, 대제학)을 시작으로 부친 학산 서호수(1736~1799, 이조판서)로 이어져 온 ‘실용지학’이라는 가학(家學)을 계승하는 한편, 북학파와의 교류를 통해 체득한 ‘이용후생’의 실용정신을 바탕으로 『임원경제지』라는 동양 최대의 실용 백과사전을 평생에 걸쳐 편찬하여 남겼다.

『임원경제지』는 농업·목축·어업·양잠·상업 등의 생산 전반을 한 축으로 하고, 의학·음식·주거·선비가 알아야 할 일상 실용 지식 등의 생활 전반을 또 한 축으로 하여 총16개 분야로 구성된 거질의 백과사전이다. 임원(林園)은 향촌(시골)을, 경제(經濟)는 가정의 운영을, 지(志)는 전문 분야의 저술 기록을 의미한다. 『임원경제지』에는 중국, 조선, 일본 등 동양 3국을 망라하여 893여 종의 책을 인용하여 당시 축적된 실용지학을 집대성한 결과물로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예를 체계적이며 매우 방대하게 기록해놓은 최고의 실용서이다. ‘조선의 브리태니커’라 일컫는 『임원경제지』는 오히려 책이 너무나 방대하여 번역서가 없었기에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소개될 뿐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2003년 오직 임원경제지의 번역을 위해 설립된 (사)임원경제연구소에서 약 20년간의 번역작업을 끝내고 2025년 완간을 앞두고 있어 임원경제지의 실용적인 내용을 실천함으로써 번역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임원경제지를 대중화하기 위해 파주시와 임원경제연구소가 손잡고 임원경제지 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임원경제지 학교는 2020년 시작되었다. 그 해는 파주시에서 파주학 출범 원년의 해를 선포한 해로, 파주학을 통해 파주만의 고유한 문화를 창출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하여 파주시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었다. 파주학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 체계적 연구를 위한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그동안 추진했던 파주 지역 인물의 선양사업을 파주학 연구의 범주 안에 포함하여 파주학 연구의 일환으로서 인물 선양 사업이 체계를 갖추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2023년 임원경제지 학교 포스터는 서유구(1764~1845)의 초상화를 상단에 배치하고, '2023년 임원경제지 학교'라는 제목을 크게 표시하고 있다. 서유구 선생의 생애와 저서 『임원경제지』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학교의 목적과 운영 방침을 설명한다. 포스터 하단에는 학교의 세부 일정과 강사 명단을 표로 정리하고 있다.

일시	강사	강제	대상	비고
1월 11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역사와 가치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역사와 가치를 소개한다.
1월 18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1월 25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2월 1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2월 8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2월 15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2월 22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2월 29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3월 6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3월 13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3월 20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3월 27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4월 3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4월 10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4월 17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4월 24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5월 1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5월 8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5월 15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5월 22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5월 29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6월 5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6월 12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6월 19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6월 26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7월 3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7월 10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7월 17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7월 24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7월 31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8월 7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8월 14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8월 21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8월 28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9월 4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9월 11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9월 18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9월 25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10월 2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10월 9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10월 16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10월 23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10월 30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11월 6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11월 13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11월 20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11월 27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12월 4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12월 11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12월 18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12월 25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서유구학당 포스터는 서유구(1764~1845)의 초상화를 상단에 배치하고, '서유구학당'이라는 제목을 크게 표시하고 있다. '조선 최대의 실용백과사전 임원경제지 강독'이라는 부제를 통해 학교의 목적을 설명한다. 포스터 하단에는 학교의 세부 일정과 강사 명단을 표로 정리하고 있다.

일시	강사	강제	대상	비고
3월 11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역사와 가치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역사와 가치를 소개한다.
3월 18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3월 25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4월 1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4월 8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4월 15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4월 22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4월 29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5월 6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5월 13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5월 20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5월 27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6월 3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6월 10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6월 17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6월 24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6월 31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7월 7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7월 14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7월 21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7월 28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8월 4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8월 11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8월 18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8월 25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8월 31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9월 7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9월 14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9월 21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9월 28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10월 5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10월 12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10월 19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10월 26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11월 2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11월 9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11월 16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11월 23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11월 30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12월 7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12월 14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12월 21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실용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실용성을 소개한다.
12월 28일	정민호	『임원경제지』의 예술성	초·중·고	『임원경제지』의 예술성을 소개한다.

서유구와 임원경제지는 첫 시작부터 ‘과주학’의 범주 안에서 지속적인 확장성을 담보하였고, 무엇보다도 임원경제지의 번역에 몰두해 온 임원경제연구소가 과주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가 확보되어 있어 실천방법의 모색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과주시는 서유구의 학문적 성과를 조명하고, 임원경제지를 통한 과주학의 대중화와 임원경제학의 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매년 새로운 주제의 임원경제지 학술대회를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원경제지 강독과 16지의 실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일년 내내 ‘매주 수요일’ 과주에서는 임원경제지 관련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풍석 서유구 선생은 1764년(영조 40) 11월 10일 아버지 서호수와 어머니 한산 이씨의 둘째로 태어나 1845년(현종 11) 11월 1일 향년 82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서유구 선생은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학문과 예술이 발전했던 영·정조 때부터 조선이 점차 몰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순조·헌종에 이르기까지 오직 농업 개혁을 통한 생산력 증대와 생활문화의 제도화 및 표준화를 통한 민생 개선에 자신의 삶을 바쳤다. 선생은 조부이신 보만재 서명응(1716~1787, 대제학)을 시작으로 부친 학산 서호수 선생(1736~1799, 이조판서)으로 이어져 온 ‘실용지학’이라는 가학 家學을 계승하는 한편, 북학파와의 교류를 통해 체득한 ‘이용후생’의 실용정신을 바탕으로 『임원경제지』라는 동양 최대의 실용 백과사전을 평생에 걸쳐 편찬하여 우리 시대에 남겨 놓았다.

동아시아 5천 년 실용지학의 결정체, 『임원경제지』

서유구 선생이 온 삶을 바쳐 완성한 『임원경제지』는 농업·목축·어업·양잠·상업 등의 생산 전반을 한 축으로 하고, 의학·음식·주거·선비가 알아야 할 일상 실용 지식 등의 생활 전반을 또 한 축으로 하여 총16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총113권, 28,000여 개의 표제어, 252만 자로 쓰인 거질의 백과사전이다.

『임원경제지』는 중국과 조선, 일본 등 동양 3국을 망라한 893여 종의 책을 인용하여 당시 축적된 동양 3국 실용지학을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예를 체계적이며 매우 방대하게 기록해놓은 최고의 실용 서이자 세계에 유례없는 전통문화 콘텐츠의 보고로,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다양한 산업 혁신을 가능하게 할 풍부한 전통지식을 담고 있다.





정조지 학교(요리 실습)



정조지 학교(요리 강의)



상택지 학교(명당 강의)



상택지 학교(명당 답사)



예원지 학교(전통화회 실습)



예원지 학교(전통화회 실습)



섬유구 학교(전통건축 강의)



섬유구 학교(전통건축 견학)

글 신민경

파주시 학예연구사. 헤음원지, 덕진산성, 임진나루 등의 문화재 조사 연구와 헤음원지 방문자센터 건립 운영을 추진하였고, 파주학 아카이브와 임원경제지 학교 등 지역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지역의 근대문화유산

- 전쟁·분단 관련 유산을 중심으로 -

이지원

I. 들어가며

안양은 예부터 한양에서 서쪽의 해양 교통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나가야 할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삼남 지방(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사람들이 육로를 이용하여 한양을 오던 때에도 안양을 거쳐서 수도 한양으로 입성했던 교통의 요지였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안양 곳곳에 전통시대와 근대기를 연결하는 문화유산 및 지명 유래담을 생산했다.

조선 후기 정조(正祖, 1752~1800)는 창덕궁에서 화성까지 이어지는 능행 행렬과 그 지역 백성들이 오래도록 편히 건너다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안교(萬安橋)를 가설했다. 구한 말에는 궁을 나온 내시들이 관양동 일대로 하나 둘 모여들면서 이들이 사는 세거지를 중촌(中村)¹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인근에 역원이 만들어질 때에는 내시들의 어진 덕행을 높여 인덕원(仁德院)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유래담이 전해진다.

또한 안양은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토 히로부미를 향하여 달리는 열차에 돌을 던진 원태우 지사의 고향이며, 항일운동을 했던 이재천, 이재현, 한홍이 선생이 태어난 곳이다. 이외 근대문화유산으로 한옥식 관청인 서이면사무소(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가 있는데, 이곳은 당시 지역민들의 수탈과 징용에 관한 기록이 비교적 잘 남아 있어 당시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장소이다.



구) 서이면사무소, 일제강점기.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

1 중촌(中村)의 '中'은 조선 후기 내시의 신분이 중인이었음을 뜻하는 의미로 중인 출신의 내시들이 모여 살았던 집성촌을 의미한다. 지금은 도시개발로 주택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내시들의 무덤과 집터 자리는 남아있지 않고 마을 지명만 전해진다.

본 글에서는 아직 잘 소개되어 있지 않은 안양지역에 남아있는 전쟁·분단과 관련한 몇 가지 유적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박달동 군부대 일원에 조성된 박달교(博達橋)와 병목안 채석장 철길을 소개하겠으며, 둘째 한국전쟁 때 전쟁고아들을 양육했던 안양의 집, 기독교보육원(좋은 집)을 소개하고자 한다. 안양지역에 전쟁 관련 시설이 많이 조성된 배경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만주와 연결된 탄약고를 박달동에 설치하면서 인근 지역에 군부대가 들어온 영향이 크다.

해방 후 미군은 이들이 사용했던 공간을 이어 쓰면서 군부대는 물론 민간인을 위한 각종 서구화된 건조물들을 지어주었다. 특히 전쟁으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미군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전쟁고아들을 보내기도 하고 이들을 위하여 지속적인 후원을 하면서 보육원이 잘 운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시설에 소속된 원생의 수도 줄고, 행정적 관리 체계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건축물은 원형을 잃었다. 그나마 몇몇 일부 시설에서 외부 원형을 찾을 수 있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내부 시설이 훼손된 곳이 대다수다.²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훼손과 방치에 놓인 안양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을 소개함으로써 관민이 협력하여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볼 기회로 삼고자 한다.

II. 안양의 근대문화유산

1. 박달교

박달교는 안양역에서 마을버스 1번을 타고 종점에서 하차 후 왔던 길을 다시 100m 정도 되짚어 내려가면 육군 제3623부대가 있는데, 그 앞에 놓여있는 콘크리트 교량이다.³ 이 다리에 관한 정보는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공문서관에 수록되어 있다. 1941년 5월 조선군경리부에서 올린 자료에 따르면 박달교는 안양-안산선 도로개축공사를 하면서 만들어진 다리이다.

처음 조성될 때에는 목교(木橋)로 만들었다가⁴ 후에 육군 병기 탄약고 진입이 용이하도록 콘크리트 교량으로 교체하였다. 이후 일본이 패망하고 미군이 주둔하면서 전술핵 무기고 운반용 대형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도록 폭이 좁



일본군 조성 구간
(서->동)



미군 조성 구간
(동->서)



박달교 난간석 기둥
(북->남)



박달교 난간석 기둥
(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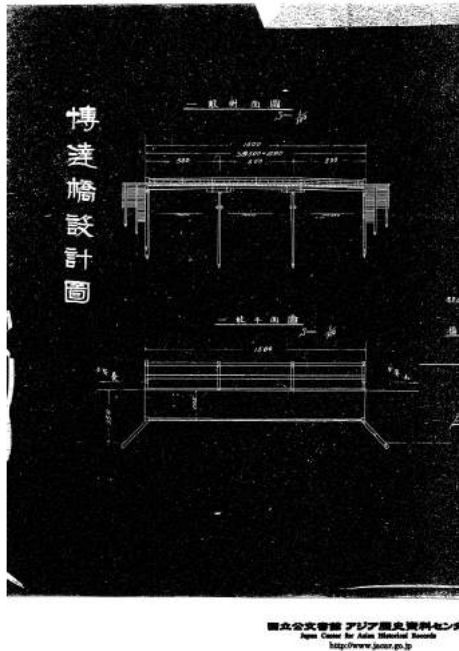
박달교

2 경기도 '아동보육협회'에 등록된 75개의 보육시설 중 한국전쟁 시기 전쟁고아들을 보호했던 시설은 대부분 처음에 운영되었던 곳을 떠나 새롭게 확장 이전했거나 남아있다고 해도 내외부를 개축하여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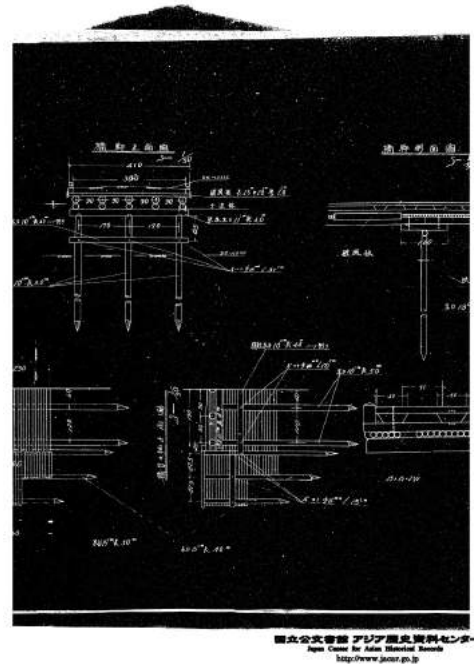
3 박달교 주변에는 1번 마을버스 종점과 1차선 도로를 따라 민간인 농경지와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

4 아시아역사자료센터(<https://www.jacar.go.jp>)

은 다리를 더 확장하였다.⁵ 일본군이 처음 가설한 목교 길이는 15m, 폭 4.1m이며, 미군이 확장한 다리 길이는 1.2m, 폭 11m로 현재 전체 길이 16.2m, 폭 15.1m, 교각 높이 4.8m이다. 교량 상판 한쪽에는 난간이 남아있는데 동·서 난간석 기둥 입면에는 ‘博達’이라는 명문과 ‘昭和〇年八月竣工’이라 새겨져 있다. 마모된 글자를 읽을 수 없으므로 소화 몇 년에 콘크리트교로 교체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조선군경리부에서 올린 목교 가설공사가 끝난 후에 다시 콘크리트 교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941년 5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달교 설계도 표지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공문서관 수록



박달 목교 설계도면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공문서관 수록

안양 박달2동 군용지는 인근 지역에 형성된 12개의 자연 부락을 강제 이주시키고 일제가 ‘평양육군병기창 안양 분창’을 조성한 곳이다. 또한 박달동을 중심으로 석수동 83군부대(석수 e 편한세상)의 조성 및 조선비행기주식회사(현 탕리단 길)가 설립되어 군수물자의 생산과 일제강점기 안양을 병참기지화하려는 일본의 야욕과 민간인 수탈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현장이다.

2. 병목안 채석장과 철길

안양시 수리산 병목안 시민공원 주변에는 일제강점기 자갈을 채취했던 채석장과 현재 금릉아파트 하천 변에 약 100m 정도의 철길이 남아있다. 이 시설물은 일제강점기(1930년경) 경부선 복선화 공사를 하면서 철로 밑에 깔아야 할 잡석을 병목안 채석장에서 채취하여 협궤철로에 실어 안양역까지 운반했던 흔적이다. 해방 후에는 건축용 골재로 쓸 석재를 운반하기도 했다.⁶

현재 채석장은 시민들의 휴게 공간인 동시에 굴곡진 역사의 단면을 살필 수 있는 학습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 병목안과 안양역을 연결하여 운영되었던 철길은 도시 개발과 함께 땅에 묻히거나 철거되었고,

5 교량의 하부와 상판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부분과 미군이 확장한 부분이 구분된다.

6 병목안 채석장 부지는 1934~1980년대까지 일제가 경부선과 경인선 철도 가설공사 구간(명하~평택)의 선로에 사용할 자갈 채취와 건축용 골재 채취를 위하여 병목안 일대 바위산을 훼손한 장소이다.

그나마 일부 구간에 남아있었던 철로 부자재(쇠못, 쇠판, 나무침목, 레일 등)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둘 사라져 지금은 부식된 침목만 남아있다.

뒤늦게나마 안양시와 도시기록연구소 최병렬 소장을 비롯한 뜻을 모은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문화재 보호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안양시에서 설치했다. 이와 같은 근대문화유산 외에도 수리산 병목안에는 한국전쟁 전사자 발굴 유해 터와 2000년 순례지로 지정된 최경환 성지⁷가 있다.



병목안 철길

⁷ 최경환 천주교 성지는 우리나라 두 번째 천주교 신부가 된 최양업의 부친인 최경환이 천주교 박해를 피하여 모여 살았던 교우촌이다. 이 곳에는 최경환의 무덤과 기해박해로 투옥되기 전 살았던 집이 남아있다.

안양시 수리산 골짜기에 형성된 근대문화유산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병존하기에 더욱 그 가치가 주목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발과 역사적, 인문학적 스토리텔링을 발굴하여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3. 안양의 집

안양 예술공원 초입 공영주차장 뒤편에는 1947년 사태현 장로(1908년 출생)가 설립한 <안양의 집>이 있다. 이곳은 아동 양육시설로 한국전쟁 때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들을 모아 양육했던 곳이다. 사태현 장로는 여주 부농의 아들로 일제강점기에 부모를 따라 만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 대소서 일을 하면서 선친의 땅을 되찾아 안양 석수동에 안양의 집을 건립했다. 안양보육원은 처음 개원 당시 몇 안 되는 원아들이 모여있는 작은 시설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전쟁고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미군은 부대 인근 보육원으로 아이들을 트럭에 태워 데려왔다. 이때 안양보육원에 입소한 아이들도 무려 수백 명이였다.

미군은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후원과 사랑을 주었으며 그 중심에는 사태현 장로의 신념과 의지, 박애정신이 안양보육원을 인근 최고의 시설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⁸ 안양의 집 교육관 내에는 당시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사진과 사태현 장로가 매일 매일의 일정을 기록으로 남긴 습작노트, 미군 후원카드 및 투명한 운영을 알리는 지출 현황이 상세하게 남아있다. 이들 자료는 이정혜 이사장(사태현 장로의 외손녀)이 잘 정리하여 기록화했다. 그녀의 구술에 따르면 당시 안양보육원의 규모는 지금의 안양의 집과 노인요양시설, 갈멜산 기도원(옛 원예기술학교), 안양사지 일부, 석수교회 건물지까지 포함하는 큰 면적이었으며, 이들 시설은 모두 보육 아동들을 위한 복지와 전문교육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안양보육원 시설은 대부분 기존의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은 건물이 대다수다. 당시의 원형을 그나마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은 현재 자연학습장(빨간지붕)과 교육관 건물이다.



안양의 집(자연학습장), 1960년 무렵



안양의 집(자연학습장) 지하시설

8 안양의 집 행정실에 보관된 자료집 중 원생이 직접 쓴 편지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사태현 장로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안양의 집(교육관)

이들 건물은 1947년 보육원이 창설되고 1960년경 추가로 지어진 건물로 추정된다⁹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은 2층을 일본식 다다미방으로 꾸몄는데 천장의 높이를 올려 아래층에서 위층을 오를 때 편리하게 만든 특징이 있으며, 1층 아래 지하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지하 방공호와 비슷한 형식의 넓은 지하시설이 있다. 마당에는 아이들이 놀았던 놀이시설 일부가 남아있어 당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관과 원이 협력하여 우리나라 전쟁 역사의 일면을 고스란히 보듬고 성장한 보육원을 잘 지원하고, 건축물 및 관련 자료들을 근대 유무형 유산으로 관리하여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4. 좋은 집

‘좋은 집’은 미국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해방 후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의사면허를 취득한 오궁선(吳兢善, 1879~1963) 박사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시설이다. 당시 그는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1918년 12월 이곳을 찾아온 7명의 고아들이 머물 수 있는 경성고아원¹⁰을 운영하게 된다. 이후 원생 수가 늘면서 1936년 9월 경기도 안양(안양2동)으로 옮겨와 기독교보육원을 새롭게 개원하였다. 이후 해관보육원, 현재의 원명인 좋은 집으로 바꾸며 지역 대표 시설이 되었다.

오궁선 박사는 당시 일본인 소유의 오끼이 농장¹² 일부(약 8만 평)를 매입하여 이곳에 보육원을 지었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경남 가덕도로 피난을 갔고, 1954년경 다시 돌아와 미군과 선교사들의 지원을 받으며 주변시설을 확장하고 전쟁고아들을 품을 수 있었다. 이 시기 미군이 지어준 건물은 여러 채가 있었으나, 현재는 의무실과 집무실

9 이정혜 이사장 인터뷰에 의하면 “어린 시절 이곳에서 잠자고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이 나서 자신이 1958년생인 것을 감안해 볼 때, 1960년 전후에 건물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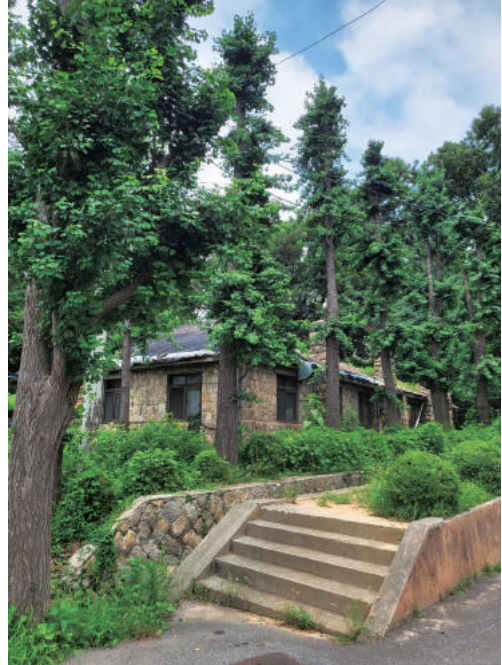
10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중극(重克), 호는 해관(海觀)이다. 아버지 인묵(仁默)과 어머니 한산 이씨 사이의 장남으로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다. 1902년 미국 센트럴 대학 교양학부를 수료하고 켄터키주 루이빌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1 1922년 재단법인 경성보육원으로 개칭

12 일본 토호 오끼이는 1930년대 중반 일본에서 포도묘목 등 여러 종목을 가져와 농장을 운영한 인물로 안양2동 대부분의 땅이 그의 농장이었다고 한다.



좋은 집(집무실), 양명고등학교 일원



좋은 집(의무실), 양명고등학교 일원



좋은 집(자립체험관), 본원 일원



좋은 집(예절관), 본원 일원

(현 양명고등학교 내) 그리고 좋은 집 본원에 있는 건물 두 채(자립체험관과 예절관)만 남아있다.¹³

의무실은 ‘ㄷ’자형의 독특한 구조이며 석재를 주재료로 하여 외장했다. 주출입구 옆에는 미군이 새긴 (IN HONOR OF MJ.HUGH T.TORRANCE ... E.HAWHEE) 머릿돌이 있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 학교 관리인이 숙소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공실로 남겨져 있다. 내부는 총 7개의 방과 외부로 돌출된 굴뚝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지붕은 누수된 부분을 비닐로 덮어 놓았는데 그 사이사이로 일본식 기와가 남아있어 건축 당시의 모습이 어느 정도 파악된다.

집무실은 의무실 건물 서쪽에 있는 건축물로 현재 양명고등학교 음악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이 건물은 축대를 높이 쌓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렸다. 건물 하단에는 양쪽으로 뚫린 출입구 외에 화덕자리로 추정되는 돛형의 공간(시멘트로 막혀 있음)이 있으며, 내부는 리모델링으로 원형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곳은 1947년경 여류화가이며 문필가였던 나혜석(羅蕙錫, 1896-1948)이 만년에 머물렀던 곳이며, 고암(顧庵) 이응노(李應魯, 1904-1989) 화백의 둘째 부인 박인경, 소설가 이무영(李無影, 1908-1960)이 머물렀던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¹³ 사무실로 추정되는 건물은 현재 안양시의 지원을 받아 양명고등학교 음악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앞 예배당이 있었던 자리는 테니스장이 들어왔고, 현 체육관 자리에도 3개 동의 건물이 있었으나 철거된 상태이다. 특히, 철거된 예배당 건물은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주말이면 결혼식장으로 사용될 만큼 고풍스러운 공간으로 기억되기에 더욱 안타까운 근대문화유산으로 남는다.

좋은 집 본원에는 1950년경 자립체협관과 예절관으로 사용되었던 두 채의 한옥건물이 있다. 이 건물은 두 차례의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원형이 변형되긴 했지만, 건물 기단부 석축이나 벽체 부분이 비교적 잘 남아있고 화덕자리와 굴뚝의 위치가 분명하여 당시의 난방 시설을 알 수 있다.

Ⅲ. 나오면서

지금까지 전쟁·분단과 관련한 안양의 근대문화유산을 살펴보았다. 이것들은 모두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것들이다. 문화재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움과 소중함이 교차되는 근대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박달교’는 군부대 앞에 있는 시설이기에 일반인 출입이 가능하기는 하나 접근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정밀 조사와 문화유산 보호 안내판은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안양의 집’과 ‘좋은 집’은 한국전쟁 때 지역 사회 고통 분담과 복지의 형태, 근대기의 역사적 일면을 살필 수 있는 유형 유산이다. 나아가 기록 유산적 가치 및 원형을 유지하고 현장을 지켜온 소중한 산물이다. 특히, 안양 좋은 집의 일부 시설이었던 의무실과 집무실은 경기도에 남아있는 희소한 건조물이기에 그 가치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문화재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그동안 경기도의 역사적 배경 및 그 건조물이 가진 특징을 기록하고 스토리텔링하면서 근대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문화재는 도시개발과 산업사회, 지형, 문화적 성향에 따라 존치 여부의 논란은 항상 논의의 쟁점이 되었다. 따라서 남아있는 문화유산을 원형기록화 후 문화재 활용사업에 중점을 두고 개발해야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아니면 개발과 활용보다 원형 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현안이다.

정부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극복하고 변화 발전했는지 알려야 하며, 전쟁 이후의 세대들이 과거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통감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발생했던 전쟁이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정전 70주년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 활동을 통하여 한국전쟁사를 알리고, 각 지자체는 축적된 자원을 바탕으로 각종 문화강좌 및 투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입체적인 활동은 우리가 몰랐던 역사 이면의 또 다른 역사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활동이며,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 이지원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안양시청 문화재 해설가로 활동 중이며 한국교육평가원 전임강사이다.

<원고 모집 안내>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경기학광장>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대 상 : <경기학광장> 제19호분 *2023년 12월 발간 예정

주 제 : 마을, 자연, 인물, 민속, 음식, 생태, 여행, 사건, 답사, 탐방, 자료, 축제, 서평, 칼럼 등 '경기'와 관련되면 무방

원 고 량 : 200자 원고지 30매(일반기고문)/ 50매(연구노트)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1일

자 격 : 경기도 내 거주 여부 무관

- 기 타** :
1. 가능한 한 기존에 발표된 글의 주제나 제목과 중복을 피하여 작성(아래 목록 참조)
 2. 원고 접수분이 많을 경우 일부 원고는 <경기학광장> 제20호에 게재될 수 있음
 3. 필자 소개를 간단히 '○○ 거주 일반인(회사원, 직장인)' 정도로 간단히 할 수 있음
 4. 기타 자세한 것은 본 책자 마지막 페이지 참조



<경기학광장> 1호~18호 수록 글 목록(필자 생략)

구분	발행시기	분 류(제목)
1호	2019. 8.	<p>전통마을_ 마산수로와 흥망성쇠를 함께한 불도마을 원도심_ 문화재생을 꿈꾸는 사람들, 포천시 관인면 나의 삶과 우리동네_ 이윤화 씨로부터 듣는 화전 이야기 구술로 듣는 현대사_ 몰라보게 변해버린 화성시의 변화, 그 이야기 속으로 인물발굴_ 용인 여성독립운동가 정정산 지사와 친정집의 발견 외길인생_ 오늘도 소년, 동화작가 윤수천 예인과 장인_ 화성 두레농악의 살아있는 역사 안병선 향토사학자_ 파주지역 1세대 향토사학자 가곡 이기현 선생 휴, 여행_ 슬퍼서 아파서 평화로운 곳들, 화성 테마관광_ 파주 탄현 성동리 통일동산 꽃과 나무_ 신들의 정원, 동구릉에 시선이 머무르다 경기도의 맛_ 설렁설렁 양지 설렁탕 역사와 사건_ 조선시대 고을이 폐지되는 사건 경기도의 민속_ 경기도의 대표적 무형문화재, 도당굿 현장탐방_ 파도에 묻힌 울음소리, 선감도에 가다 경기옛길 소개_ 삼남길, 조선물류의 대동맥 경기학칼럼_ 이야기를 찾아서 기전의 고문서_ 그 많던 고문서는 다 어디로 갔을까? 고고소식_ 경기남부 최대의 청동기 시대 마을유적, 화성 수영리 유적 문화자산의 활용_ 경기도 옛길 역사문화탐방로의 시작 경기도 책 길라잡이_ 한수산 작가의 '길에서 살고 길에서 죽다' 연구노트_ 경기도 제사유적에 대한 소고 -온조왕묘를 중심으로 특집논고_ 지도로 본 경기도</p>
2호	2019. 10.	<p>전통마을_ 영남대로의 길목이었던 도란마을 원도심_ 길게 흥하길 바라 장흥(長興), 양주시 장흥면 세거마을_ 봉화정씨 문헌공파 600년 세거지 평택 은산리 이색지대_ 내 낡은 서랍 속의 소중한 기억, 동두천 양키시장 토박이구술_ 파주 토박이 강돈희 어른의 삶과 우리 현대사 경기도가 제2의 고향_ 류선하 선생님이 들려주는 옛 교육현장 지역운동가_ 성남의 원로 하동근 원장이 말하는 성남의 실세 외길인생_ '종이'로 세상을 창조하는 남자 장인과 예인_ '박다교'가 소리를 하고 싶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향토사학자_ 자료에 미쳤고 수집에 열정을 바친 이한기의 삶 휴 여행_ 길목에서 만난 풍경에 목적지를 잊다 꽃과 나무_ 남한산성을 거닐다. 그리고 마주하다 경기도의 맛_ 천서리 막국수촌 역사지식_ 조선시대 노비들의 토지매매 경기도의 민속_ 경기도 옛 읍치 마을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성황제 경기옛길_ 역사문화탐방로 의주길 여행칼럼_ 남 고비, 하르 노르, 마두금 -몽골 시물라크르 기전의 고문서_ 남양주 해주정씨 고문서로 읽는 경기 이야기 지명유래_ 경기도 땅이름 이야기 고고소식_ 작지만 살찐 유적, 경기도의 소규모 고고학 유적 학술현장_ '경기도 효인성교육현장의 목소리' 포럼을 다녀와서 경기학 책 길라잡이_ 경기 천년의 문화사 경기학 논고_ 길 위의 부처에게 황제의 길을 묻다</p>

구분	발행시기	분 류(제목)
3호	2019. 12.	<p>전통마을_ 의왕시 산업의 역군이 사는 통미마을 원도심_ 시장에서 예술하기, 안양시 석수동 세거마을_ 의왕시 내손동 능안마을 전주이씨 임영대군 정간공파 이색지대_ 애달픈 단조(短調)의 거리, 행궁동 점집거리 토박이구술_ 동두천 토박이 김재만 어린이 들려주는 우리 현대사 제2의 고향_ 평택의 토박이, 정수일 님이 들려주는 농촌과 전통문화 여성독립운동가_ 용인 3대 독립운동가 집안의 오히옥 지사 외길인생_ '창작불화'로 시대를 그리다 장인과 예인_ 경기도 최초 한복 분야 대한민국명장 이윤숙 휴 여행_ 평택인 듯, 평택 아닌, 평택 같은 곳 꽃과 나무_ 한겨울 왕숙천, 초록 세상을 만나다 역사여행_ 수원화성 행궁길과 수원의 근현대사 경기도의 맛_ 임진강 장어구이 역사지식_ 도미부인이 떠난 나루터 경기도의 민속_ 철마의 전설이 서려있는 양평 성덕리 고창굿 경기옛길_ 경기도 옛길 역사문화탐방로 영남길 인물답사_ 이천 김좌근 고택을 찾으며 생각했다 경기학칼럼_ DMZ를 다시 생각하다 기전의 고문서_ 양성 덕봉리 선비마을의 해주오씨 고문서 지명유래_ 경기도의 대표 지명과 그 유래 고고소식_ 백제의 국가 탄생과 화성 마하리 무덤때 경기학 책 길라잡이_ 한국의 발견 -경기도- 학술현장_ 경기학포럼 '경기도 신앙유적과 그 해석' 연구노트_ 경기도 신라 고분에 부장된 토기 제기 습속 경기학논고_ 경기도의 주막거리</p>
4호	2020. 3.	<p>전통마을_ 안동김씨 권세의 온상이었던 남양주 석실마을 원도심_ 꿈엔들 잊힐리아 영세불망 어비울, 용인시 어비리 세거마을_ 화성시 남양홍씨 문화공파 흥인필 가문 이색지대_ 대한민국 속의 작은 외국,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토박이구술_ 고양시 토박이 이영국 어른의 삶과 우리 현대사 고향이아기_ 나의 살던 고향은? 김영희 선생님께 듣는 고향생각 외길인생_ 한국 도자기를 지키는 도자기 장인, 한상구 외길인생_ 목소리로 시대를 풍미하고 새 시대 여는 성우, 윤소라 장인과 예인_ 나무가 나무로서 나무만의 삶을 사는 이상근 목조각가 향토사학자_ 지독(舐犢)한 성남시의 향토사학자, 한동역 휴 여행_ 내 안의 '흥'을 깨우는 도시, 시흥 꽃과 나무_ 경기옛길(영남길) 잣말의 마지막 봄을 만나다 경기도의 맛_ 하남 동경주 산채나물밥 역사지식_ 개성 한영서원의 애국창가집 사건과 3·1운동 경기옛길_ 조선 6대로와 경기옛길 인물답사_ 송시열과 크고 낡은 대로사 경기학칼럼_ 지역 연구의 즐거움과 괴로움 기전의 고문서_ 안산시 부국 진주유씨 고문서 고고소식_ 행주대첩보다 천 년 전에 쌓은 신라고성, 행주산성 경기학 책 길라잡이_ 연산군 금표비 연구 경기학논고_ 조선시대 경기도의 행정변천</p>

구분	발행시기	분 류(제목)
5호	2020. 6.	<p>전통마을_ 남한강 수운(水運)의 역사가 깃든 한여울 마을 세거마을_ 22대 종손이 거주하는 고양시 도내동 한산이씨 인제공파 도시마을_ 용인 수지구 동천동에 꽃핀 신(新) 마을공동체 도시재생_ 동구 밖을 나서던 이등병의 고향, 파주 광탄면 신산리 토박이구술_ 연천군 토박이, 류봉춘 어른의 삶과 우리 현대사 외길 인생_ 수원 연극의 산 증인, 류천희 외길인생_ 빈울 문신사, “타투는 서브컬처계 종합예술!” 장인과 예인_ 운명처럼 다가온 가야금 인생, 韓律기쁨국악단 신화정 단장 향토사학자_ 향토사 연구에 일생을 바치다, 구리시 박명섭 휴, 여행_ 숨길 트이는 푸름, 발길 머무는 초록, 남양주 지역명소_ 다양한 습지생명을 품는 시흥 연꽃테마파크 지역명소_ 자연생태보전지역 포천 청계산 산행_ 한남정맥 산행: 안성 칠장산에서 가현치까지 경기도의 맛_ 백암장이 탄생시킨 백암순대 고고소식_ 수원, 최초로 신석기인과 마주하다 사건취재_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경기지사_ 민선 경기지사 : 1대 이인제 도지사 책소개_ 경기도의 작은 축제 공간과 역사_ 근현대사의 현장과 공간, 종교 역사지식_ 광주관아와 선정비 기전의 고문서_ 광주시 텃골 광주안씨 고문서 경기도의 민속_ 금닭이 알을 품은 마을, 엄미리를 지키는 장승 유적탐사_ 용릉과 건릉의 화서 및 외금양지, 화성 외금양계비 학예연구사 코너_ 용인의 진산(鎭山)을 밝히는 불, 석성산 봉수 논고_ ‘경기’의 또 다른 이름, ‘기전(畿甸)’</p>
6호	2020. 9.	<p>전통마을_ 안성시내의 농촌마을 도구머리마을 세거마을_ 파주 사목리와 금승리의 장수항씨 세거지 문화지대_ 거례를 사랑한 시인 홍사옹, 그의 숨결이 남아있는 노작로 토박이구술_ 포천의 토박이 최창근 어른의 삶과 우리 현대사 예인장인_ 평양검무 초대 보유자 이봉애, 안양에 잠들다 인물탐방_ 효와 인성 플랫폼, 통과외례 체험 예아리박물관 김보옥 회장 외길 인생_ 사라진 옛 글자 복원해야 한글의 세계화 이룰 수 있어 외길인생_ 나무 깎는 남자, 소목장 법련 안규조 외길인생_ 경제개발 시절 전문 직업인으로 살다, 회계사 김면기 휴, 여행_ 수원화성의 낮과 밤, 아름다움이 적을 이긴다 산행_ 한남정맥 산행: 가현치에서 용인 농촌테마공원까지 경기도의 맛_ 이천쌀밥 원조, 이천돌술밥 고고소식_ 아버지의 굽은 허리, 백제시대 다랭이논 사건과 성찰_ 선감학원 위령비, 시공간의 아픔을 새기다 사건과 성찰_ 경기도의 아이들 경기지사_ 임창열의 문화와 관광과의 의미있는 융합 책소개_ 경기도의 진짜 주인공들, 『경기백성실록』 공간과 역사_ 학교, 근대가 태어나 자라난 공간 역사지식_ 병자호란과 서훈남 기전의 고문서_ 용인시 모현 오산리 해주오씨 고문서 경기도의 민속_ 고고민속학의 현장, 이천시 수하리 고인돌의 연결형... 연구노트_ 경기도 소재 성종 자녀 태실의 태주 검토 학예연구사 코너_ 남양주에 전하는 참다운 우정, 이덕형과 이항복 학예연구사 코너_ 지질공원의 역할과 실천사례 논고_ 삼한시대의 핫 플레이스, 경기북부지역</p>

구분	발행시기	분 류(제목)
7호	2020. 12.	<p>전통마을_ 포천의 유원지마을 도평리 세거마을_ 의왕시 양곡동, 4대 6정승을 낳은 청풍김씨 세거지 이색지대_ 추억과 감성의 아름다운 일상화, 평택 국제중앙시장 토박이구술_ 홍성준 양주문화원장으로부터 듣는 양주 이야기 토박이구술_ 정월 나해석 기념사업회 유동준 회장 토박이구술_ 매일 일기 쓰는 남자, 파주 용미리 이영복 어르신 토박이구술_ 구술기록, 포천시의 38선과 6·25 인물탐방_ 이석형 선생의 후손 이문자 선생, 400년 종갓집 장맛을 잇다 인물탐방_ 오매장터 터주대감 김유훈, 일내다 예인장인_ 시흥의 국악인 박일엽 휴, 여행_ 마음이 편안한 행복맞춤의 고장, 안성 산행_ 한남정맥 산행: 용인농업기술센터에서 기흥구 무네미고개까지 경기도의 맛_ 평택 석일식당의 간장게장 고고소식_ 북한강이 품은 낙랑인의 무덤, 남양주 금남리 유적 사건과 성찰_ 경기도 안전사고 경기지사_ 손학규의 의미 있는 지방자치 실험 책소개_ 일제강점기 경기도의 재력가 공간과 역사_ 오래된 미래 앞에서 공간과 역사_ 서울대 농생대에서 경기상상캠퍼스로 이어지는 긴 여정 역사지식_ 남한강 법화사와 양고리 기전의 고문서_ 의정부시 장암동 반남박씨 고문서 경기도의 민속_ 선비들의 와유(臥遊)와 놀이, 상영도 놀이 유적탐사_ 부천에 있는 웅주들의 묘를 아시나요? 학예연구사_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부장 조성환 선생과 여주 보통리 고택 논고_ 경기도 남인 연구</p>
8호	2021. 3.	<p>전통마을_ 이상적 농촌사회를 꿈꾸던 남양주 능내리 세거마을_ 용인시 지곡동의 한산이씨 음애공파 명소기행_ 공감각(共感覺)의 낙원, 오이도에서 설익은 낭만을 묻다 인물탐방_ 의정부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며 활기찬 삶을 사는 최영희 토박이구술_ 조선의 아들에서 대한민국의 아버지로, 파주 송주헌 어르신 외길인생_ 천년 떡집을 소망하는 떡 장인 이규봉 외길인생_ 우리나라 1세대 행위예술가 김석환, 여전히 '청춘' 휴, 여행_ 다시 봄, 잠시 의왕 산행_ 한남정맥 산행: 무네미고개에서 기흥구 효자고개까지 경기도의 맛_ 100년 노포 '안일옥'의 안성맞춤우탕 고고소식_ 남한강이 품은 신라인의 사후세계, 이천 중리 신라무덤군 사건과 성찰_ 경기도 미제사건 경기지사_ 김문수 전 도지사의 큰 그림 '대수도론' 책소개_ 경기도 불천위 특별기고_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전초, 경기문화재단 공간과 역사_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옛 공장 터를 거닐다 역사지식_ 용문산 의병과 상원사 종 역사지식_ 안성의 덕망있는 독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박필병 선생 기전의 고문서_ 옛 김포군 원당리 의령남씨 고문서 경기도의 민속_ 절로 들어간 조왕신앙 유적탐사_ 현종의 왕녀인 명선·명혜·명안공주의 묘가 경기도에 있다 학예연구사_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현황과 발전방안 고찰 논고_ 경기도의 신라 고분</p>

구분	발행시기	분 류(제목)
9호	2021. 6.	<p>전통마을_ 김포의 민통선 마을 용강리 작은모임_ 이방인과의 만남, 셋이서 옷다 구술기록_ 50여 년, 종손집 며느리의 삶을 살아온 여인 이선호 씨 이야기 구술기록_ 소년 연락병의 망향가,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김원규 구술기록_ 용인 모현에 세거했던 진주류씨 목천공파의 류래호 종친회장 외길인생_ 악기의 제왕 품격 지켜주는 피아노 조율사, 지봉기 휴, 여행_ 예술이 된 극락정도, 안양 산행_ 한남정맥 답사기 : 용인 효자고개에서 아차치 고개까지 경기도의 맛_ 미꾸라지털레기, 뽕계식당 고고소식_ 한성백제 독쟁이마을, 파주 축현리 토기가마 사건과 성찰_ 세월호 참사,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길(상) 경기지사_ 남경필의 혁신, 연정실험 책소개_ 경기도의 6·25 공간과 역사_ 연천역, 죽미령, 지평리 -한국전쟁 71년 문화유적_ 스승과 제자, 여주 고달사 역사인물_ 취석실 우하영의 생애와 실학사상 역사인물_ 애국지사 한백봉 비화 기전의 고문서_ 안성시 보체리 동래정씨 고문서 경기도의 민속_ 삶의 지식을 담은 노래, 평택 뱃소리 학예연구사 코너_ 안성 사당패와 바우덕이 특별기고_ 화성과 워싱턴은 인류사의 두 기념비 논고_ 경기도의 제사유적</p>
10호	2021. 10.	<p>전통마을_ 신도시의 전원마을 수원 호매실동 자목마을 작은모임_ “외우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어린이 논어교실 구술기록_ 고양 백정현 어르신께 듣는 6·25전쟁 이야기 구술기록_ 재단법인 한국등잔박물관 김형구 관장 인물담방_ 경계 없는 유통의 달인, 권영석 그리니쉬농업회사 대표 휴, 여행_ 신구와 생사의 경계에서, 고양 행주산성과 서오릉 산행_ 한남정맥 답사기 : 용인 아차치 고개에서 버들치 고개까지 명소답사_ 죽음의 공간, 문화의 공간으로 부활, 망우리공원 경기도의 맛_ 안양 비산누룽지백숙 고고소식_ 경기도의 신석기인, 해양시대를 열다 -김포 신안리 유적 사건과 성찰_ 세월호 참사,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길(하) 책소개_ 도시의 두 얼굴 -경기도 신도시의 탄생과 성장- 공간과 역사_ 포천 남북교역 시장의 추억과 ‘새 희망마을’ 문화유적_ 여주 신륵사와 해인사 고려대장경 기전의 고문서_ 이천시 고백리 풍천임씨 고문서 경기도의 민속_ 조선의 신이 된 관우, 경기도 분원리에서도 좌정했었다 학예연구사 코너_ 풍악산에 견주던 경승, 한탄강(漢灘江) 학예연구사 코너_ 의왕시, 의왕향토사료관 그리고 소장 문화재 논고_ 경기도 지역 석탑의 전개과정과 조영 특징</p>

구분	발행시기	분 류(제목)
11호	2021. 12.	<p>전통마을_ 38선이 통과했던 포천 연곡리 제비울마을 인물탐방_ 공양주보살-불국행 김숙자, 스님들은 나만 보면 좋아라 했어요 토박이구술_ 양재문 씨에게 듣는 고양시 농업 이야기 토박이구술_ 정동만 용인 독성2리 이장, 마을주민 통째로 집단이주 추진 외길인생_ '아이 제일주의'로 완성한 배혜경 교장의 교직생활 40년 휴, 여행_ 청춘은 음악과 함께 여기에 남아, 음악도시 가평 산행_ 한남정맥의 현주소, 수원~의왕 구간 경기도의 맛_ 김포 김구원선생 두부 고고소식_ 조선시대 온돌의 발견 - 평택 화양리 유적 문화유적_ 안양 중초사와 안양사, 이름이 이름이 아니다 책소개_ 경기지명총람 -경기도의 행정구역과 일제 잔재 공간과 역사_ 기지촌: '더러운 그리움'의 공간 기전의 고문서_ 군포시 속달동 동래정씨 고문서 경기도 민속_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역사와 전설의 경계에서 손돌을 보다 학예연구사 코너_ 학예사와 시민이 함께 만든 금촌 재개발지역 기록화사업 연구노트_ 안양시 석수동 마애종과 삼성산 삼막사 삼귀자 석각 논고_ 역사성을 내포한 경기도의 지명</p>
12호	2022, 4,	<p>전통마을_ 영화와 별보기 체험의 명소가 된 양평 구둔마을 인물탐방_ 꽃 전문가 김정애 "꽃은 내 딸이자 남편이자 친구였어요" 토박이구술_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후손 이정학 씨 토박이구술_ 광복군 부부 신송식·오희영 지사 딸딸 신영선 외길인생_ 책과 공간 나누며 더 나은 세상 꿈꾸는 박영숙 도서관장 휴, 여행_ 작은 땅 큰 꿈, 구리 산행_ 한남정맥의 현주소 경기도의 맛_ 연천 아우라지 매운탕 고고소식_ 원삼국시대의 경기 북부권 최대 신도시 - 파주 대능리 유적 문화유적_ 안성 기술리 이불병립상, 새로운 세상 책소개_ 경기도의 태실 공간과 역사_ 유원지의 하루, 경기도 근대 유원지의 탄생과 변화 기전의 고문서_ 성남시 무두마니 해주오씨 고문서 경기도 민속_ 광주부 고지도에 표기된 '주막', 그리운 대면의 공간 학예연구사 코너_ 성남의 옛 사찰 법륜사 불화 디지털 헤리티지(Digital Heritage) 구축 방향성과 지역박물관의 역할</p>

구분	발행시기	분 류(제목)
13호	2022. 7.	<p>전통마을_ 추읍산 자락의 농촌 증성마을 인물탐방_ 정가(正歌)의 거성 우봉 이동규의 만시지탄, 인간문화재 토박이구술_ 진밭마을 토박이 이계희 씨의 살아온 이야기 토박이구술_ 불교문화예술의 성지를 조성하고 있는 와우정사 해곡 스님 외길인생_ 마술로 사람을 잇는 '마술 전도사' 황휘 휴, 여행_ 미래를 사는 도시에서 과거를 찾는 여정 산행_ 길에서 만난 문화유산 경기도의 맛_ 「영동집」 돼지곱창찌개 문화유적_ 박세당, 사유의 자유를 꿈 꾸 이상주의자 고고소식_ 카페촌에 잠자던 원삼국시대 마을 사건과 성찰_ 3·1운동과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 책소개_ 기전지역의 봉수 공간과 역사_ 근대판 '대동여주도(大東輿酒圖)'의 편린 기전의 고문서_ 양평군 용진 안동김씨 고문서 경기도 민속_ 이포 삼신당, 번성했던 나루의 추억 학예연구사 코너_ '전(傳) 김정희' 바위글씨 「단하시경(丹霞詩境)」 학예연구사 코너_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의 흔적을 찾아서 연구노트_ 하남 이성산성의 명칭에 대한 소고</p>
14호	2022. 10.	<p>전통마을_ 남한강변의 두메마을 큰청단 인물탐방_ 인쇄소 '유진보라' 심형섭 사장, 인쇄소 생존법 토박이구술_ 행주에서 살아온 강홍강 씨로부터 듣는 행주 이야기 토박이구술_ 꽃 그림 대가 수채화가 김영란 선생 외길인생_ 커피에 홀리다, 로스터 봉상훈 휴, 여행_ 부천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산행_ 길에서 만난 문화유산 경기도의 맛_ 연 요리 전문 '장금이' 문화유적_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원화성 이야기 고고소식_ 신의 공간, 청동기시대 미스터리 공간 발견 사건과 성찰_ 해방 정국과 여운형 암살사건 책소개_ 신증동국여지승람 속 경기도의 고적·산천·사찰·역원 현장탐방_ 개성 방문 단상 공간과 역사_ 극장,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같은 공간 기전의 고문서_ 수원화성박물관 홍은위 정재화 가문 고문서 경기도 민속_ 일산 밤가시초가, 도시 속에 남겨진 마지막 초가집 학예연구사 코너_ 용인 처인성, 고려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승전지 학예연구사 코너_ 포천에 깃든 낭선군의 글씨 연구노트_ 안양시 망해암 석조여래입상에 대한 재고</p>

구분	발행시기	분 류(제목)
15호	2022. 12.	<p>전통마을_ 나그네의 복합문화공간이었던 매산리 인물탐방_ 한의학계의 '작은 거인', 경기에서 인술을 펼치다 토박이구술_ 포천 토박이 이만구 님께 듣는 포천 공무원 생활 이야기 토박이구술_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과 현대를 오가는 이지현 혜경궁 마마 외길인생_ 지역을 디자인하고 기록하는 한민규 '우리동네사람들' 대표 휴, 여행_ 태조 이성계의 도시, 원조 부대찌개의 고장 산행_ 길에서 만난 문화유산 경기도의 맛_ 곤지암 소머리국밥 문화유적_ 황희, 세종과 수어지교를 나누다 고고소식_ 감악산이 품은 백제의 북벌 전진기지 사건과 성찰_ 1971년 광주대단지사건 책소개_ 경기백성실록 ※제6호에도 소개 공간과 역사_ 저수지와 호수에 관한 짧은 보고서 기전의 고문서_ 용인시박물관 의령남씨 고문서 경기도 민속_ 양주 장흥면 돌고개 초당 전설, 중국으로 간 소년과 신이 된 부모 학예연구사 코너_ 세계유산이 제공하는 혜택, 그 본질을 고민하다 학예연구사 코너_ 석수동 214번지의 역사, 단일한 공간과 중첩된 시간</p>
16호	2023. 3.	<p>전통마을_ 소사벌의 농촌마을 중복리 자연생태_ 연천 연강나룻길에 깃든 생물다양성 인물탐방_ 수원 농촌진흥청의 버섯 황금기를 만든 두 주역 토박이구술_ 포천 토박이 이만구 님께 듣는 포천 공무원 생활 이야기 2 토박이구술_ 녹야 김윤덕 명인을 기리는 일에 정성 쏟는 딸 김정숙 외길인생_ 새 꿈 짓는 여성 건축가 이희정 휴, 여행_ 빛과 어둠을 소요하는 시간, 동두천 산행_ 길에서 만난 문화유산 이야기 경기도의 맛_ 가평 닭갈비 1세대 '할매춘천닭갈비' 문화유적_ 서원과 사당의 고장 포천 고고소식_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 사건과 성찰_ 선감학원 사건 책소개_ 경기도의 세거성씨 공간과 역사_ 낡은 사진 읽기의 즐거움: 석 장의 사진에 대한 단상 기전의 고문서_ 이천 함양박씨 고문서 경기도 민속_ 하재일기: 도자기 제작소 직원이 기록한 광주 분원리의 삶 경기학예연구회 코너_ 청심루와 여주관아의 흔적을 더듬어보다 경기학예연구회 코너_ 하남 동사지, 최초의 학술발굴조사 실시 연구노트_ 안양사 칠층전탑에 대한 검토</p>

구분	발행시기	분 류(제목)
17호	2023. 7.	<p><Nature & People> 양평 용문사 '왕할매' 은행나무 여행가 손효원의 35년, 여행 끝에 남은 것은? 국립경찰교향악단 지휘와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까지 영원한 마에스트로 정철주 이 사람은 대장장이올시다. 신인영</p> <p><Trip & Healing> 민어회 전문 '문성5호' 세계유산, 파주 장릉 보훈의 달, 오산 죽미령평화공원을 찾다 품격있는 문화예술의 도시 -안성맞춤의 고장, 안성 문학기행</p> <p><Research & Study> 이천시 비지정 무형유산 현황과 전승양상 『화성시사』 편찬사업의 추진과 성과 『수원시사』 편찬사업의 추진과 성과 경기문화재단연구원 발굴조사 성과 경기도 향일운동 유산 및 친일잔재 조사사업 성과</p>
18호	2023. 9.	<p><Nature & People> 도심에서 만난 '물향기수목원' 아름다운 가을꽃의 향연, 평택시 농업생태원 지역문화운동과 '용인문학'의 산증인 시인 김종경 우리나라 버섯 분류학의 선구자 김양섭 박사</p> <p><Trip & Healing> 상수골 60번지 칼국수 전문점 '마지막 모습'이 서려 있는 임진강과 연천 '정려가 다섯 개~' : 안산 오정각</p> <p><Research & Study> 전곡선사박물관의 오늘이 있기까지 조선시대 전기 왕실 원찰 성남 갈현동 유적 '임원경제지 학교'를 통한 파주학의 대중화와 임원경제학의 태동 경기도 안양 지역의 근대문화유산</p>

경기학센터 소개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는 경기도에서 경기지역학을 전담하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집중적으로 조사, 연구, 개발, 활용, 교육, 전파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학센터 사업은 크게 경기지역학 연구활성화, 경기학 도서 발간·보급, 문화자원 기록·보존·관리 사업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으로 지역학 강좌·교육, 경기학 조사와 연구, 경기지역학 네트워킹, 경기 역사문화총서 발간, 청소년 역사교재 제작·보급, 경기도 대표인물 평전 발간, 계간지 『경기학광장』 발간, 경기도 현대지역사회 기록화(마을지 편찬), 근현대 문화자원 아카이브, 자료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을 통하여 경기학센터는 경기도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밝히고, 경기학 발전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기학센터의 성과물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www.library.kr) '경기도메모리'를 통해 PDF 파일로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학광장』 원고 모집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센터가 계간으로 발행하는 『경기학광장』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경기학광장』은 지역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 마당'입니다. 전문학자가 아니더라도 집필할 수 있는 가벼운 소재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 투고 원고에 대해서는 간단한 내부심사 후 게재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다른 결과물 또는 인터넷상의 정보를 적당히 짜깁기한 원고는 수록하기 어렵습니다.
- 다소 거칠더라도 직접 조사·탐방·취재한 내용을 원합니다.
- 다른 곳에 이미 발표한 글, 수록 예정인 글을 수정하거나 요약한 것은 가급적 배제합니다.
- 기존 『경기학광장』에 수록된 글과 비슷한 주제, 같은 자료에 대한 소개·서평·연구 등은 지양 바랍니다.
- 책자 발간 후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원고료 반납 조치 및 향후 글쓰기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글 감

분 야 :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
주 제 : 마을, 자연, 인물, 민속, 음식, 생태, 여행, 사건, 답사, 자료, 르포, 축제, 책 소개, 칼럼, 연구노트 등 '경기'와 관련되면 무관

자 격

경기도민이거나 경기학에 관심 있으면 누구나 가능 (고정 집필진이 있는 게 아님)

분 량

일 반 : 200자 원고지 30매
연구노트 : 200자 원고지 50매

원 고 료

200자 원고지 1매당 10,000원

모 집 기 한

2023. 10. 31.(제19호분)

심 사

재단 내부심사 후 게재 결정

절 차

사전 접수 후 게재가 결정되면 투고신청서·투고확약서와 함께 완성본 제출

접 수 처

butwoo@ggcf.or.kr

문 의

031-231-8571(경기학센터)

* 구독 신청 및 중지 요청 포함



Nature & People

도심에서 만난 ‘물향기수목원’

아름다운 가을꽃의 향연, 평택시 농업생태원

지역문화운동과 ‘용인문학’의 산증인 시인 김종경

“테니스를 하십니까? 버섯 채집 다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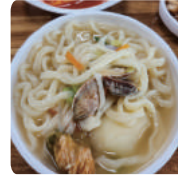


Trip & Healing

상수골 60번지 칼국수 전문점

‘마지막 모습’이 서려 있는 임진강과 연천

‘정려가 다섯 개~’: 안산 오정각



Research & Study

전국선사박물관의 오늘이 있기까지

조선시대 전기 왕실 원찰 성남 갈현동 유적

‘임원경제지 학교’를 통한 파주학의 대중화와 임원경제학의 태동

경기도 안양지역의 근대문화유산

